

장현구 (당시 26세)

舊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9년 서울 출생
 1988년 대원 고등학교 졸업
 1989년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입학
 1990년 카톨릭 학생회 회장, 제 1대 공대 학생회 홍보부장
 1991년 제 2대 공대 학생회 제 1기 학원 자주화 추진위원장
 1992년 11월 9대 총학생회 제 1기 학원자주화 추진 위원장
 대통령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중 폭력 연행후 가혹, 고문수사 당함
 1993년 2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출소
 1993년 3월 부정입시관련 비상학생총회 중 교수, 직원에 의한 집단구타당함
 1993년 4월 이후 정신과 입원 치료
 (이후 5차례에 걸친 입, 퇴원 과정에서 3차례 자살 기도)
 1995년 12월 4일 서울 송파동 송파 사거리에서 분신(전신 80%,부분 3도화상)
 1995년 12월 14일 10일 간의 투병 끝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3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혼란과 재단이 바뀌면서 기업화된 학원 운영과 이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 각종 비리와 부정, 특히 부정 입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불과 3달전인 92년 11월, 이러한 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 이나라 백년지대제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연한 자세로 당시 경원대학교 제9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으로서 자주학원 건설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했던 장현구 동지는 정부의 시너로 전락해버린 학교 당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고소, 고발로 같이 활동하던 몇몇의 간부들과 같이 성남 경찰서에 고발 당하였다.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일말의 양심도 저버리고 제자를 고소, 고발한 교수들에게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갈등하던 장현구 동지는 얼마후 구속 영장도 없이 잠복중이던 성남 경찰서 소속 전담반 형사들과 10여명의 정사복 경찰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현구 동지는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당시 성남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은 직무를 남용하여 48시간 이상 구금하였고 가혹행위등 고문수사를 하여 장현구 동지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구속 수감되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몇차례 자살을 기도(음독, 혀절단)하였고, 결국 1995년 12월 4일 분신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졌던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학살의 수괴들에 대한 사면 운운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는 조국과 민족 앞에 청춘을 바치신 동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과거의 환영으로부터 시달리며 어둠과 차가운 그늘속에서 신음하는 애국자들의 삶을 역사와 민족 앞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몫이요 진정한 과거 청산의 시작이라.

◎ 유고글

<편 지>

정수형 보세요
 저는 이곳에서 휴가라도 보내는 듯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마다 따뜻하게 잘 해주고, 또한 의장님의 모습도 가끔 보곤 합니다. 그들은 나하고 대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만날 때마다 큰 힘을 받곤 합니다.

형, 날씨가 매우 추운데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택지도 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형의 편지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나가서 만나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곳에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 후배들과 혼자 떨어져 있으니 학교에 있을때 동료들에게 잘못된 것만 생각이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나오 동지들의 따사로움을 여기서 느끼는가 봅니다.

여기서도 선거 소식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옳습니다. 잠시나마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가졌었나 봐요. 그렇지만 형 힘나는 말 한마디만 쓸게요. 누군가 그랬듯이 "우리는 한 번만 이기

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생각나요. 저들은 또다시 매번 우리를 탄압해야 이기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 오늘부터 편지를 할 수 있어요. 매일 매일 한통씩 편지 할게요. 그리고, 상수, 현이형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물론 내일이면 편지하겠지만. 그리고 까까형도 몸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형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마지막 말을 써야 잘 썼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형 추운데 몸조심 하세요.

12월 30일 현구

◎ 추모글

<추모의 글>

고 장현구 후배를 추모하며..

현구야, 너를 보낸지 오늘이 몇 일째인지 아니?

지난해 12월 14일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동생 현기가 있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이 세상을 떠난 너를..

나는 지금 빈소 옆 안치실에 굳게 잠겨있는 냉동실 안에 누워있는 너를 생각해본다.

내가 처음 공대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너를 알게 되었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학생회 일을 했고, 깊은 밤 날새는 줄 모르면서 술잔속에 서로를 확인했었지.

내가 총학생회에서 학원자주화 일을 시작했을 때, 너 역시 나와 같은 생각과 자세로 같이 하였고 인간이라 생각하기조차 끔직한 학교의 탄압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지 않았겠니?

92년 고소와 고발 그리고 제적된 몸으로 8명의 전담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러 성남시내로 나갔다가 연행된 날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구나.

밤이 새도록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구 너를 혼방시키려 갖은 방법과 애를 써 보았으나 결국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학교 당국은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고소, 고발 사건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치를 떨었던단다.

결국 나 역시도 두달뒤에 구치소로 넘어갔고, 기억 나니? 너는 재판받기위해 나와 영복이는 검사 취조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당당하고 의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너는 재판을 받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달 뒤 너를 만날 수 있었지. 구치소 면회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나간 너를 걱정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에서나 알 수 있었다.

내가 나오자마자 정신없이 몇 일을 보내고 나니 너는 병원에 입원을 했더구나.

필동, 용산에서 너를 면회했을 때 손과 뜨미한 눈으로 고개 숙이며 어색해야 하는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가슴이 메었다. 무엇이 그토록 너를 힘들게 만들었기에 혀를 깨물고, 옥상에서 투신하며, 수면제를 한 꺼번에 먹었으며 끝내는 아무런 말없이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이렇게 두눈이 함몰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면서까지 안치실에 한달이 넘도록 누워있는거니?

너는 너무도 순박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 시대의 양심이었으며 너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과 저도 용서했다.

현구야! 너가 떠난 빈자리가 아무리 크고 아픈 상처가 깊을지라도 난 이제 너를 편히 보낼수 있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달이 다 되도록 모든 것을 뒤로하고 농성하는 후배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직장도 그만두고 이곳을 지키는 동문들, 우리들의 주장에 동감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않는 열 상가의 조문객들.

현구야! 이제는 모든 것 우리들에게 맡기고 편히 눈을 감아라.

서럽고 아쉬운 것, 하고 싶거나 못한 일 모두 우리가 하마.

아버님, 어머님, 현기도 걱정마라.

이제는 의연하게 이겨내고 계시며, 너를 떠나 보내며 수많은 아들, 딸을 얻으셨다. 그리고 나도 너를 대신하여 앞날을 살 것이다.

현기도 의젓하고 모두가 너를 보낸 슬픔에서 일어나 너를 이렇게 만든 학교당국과 경찰을 단죄하는 의로운 일에 손발을 걸어 붙였으며 승리는 눈앞에 직면하였다.

이생에서 못다한 너와 인연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들의 말로를 보며 웃자꾸나.

1996년 1월 경찰병원에서

노수석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76년 11월23일 광주출생
 1995년 광주대동고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법대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총련 집회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폭력적 진압에 의해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노수석 동지는 97년 3월 29일 종로5가에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로 열린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후 경찰에 쫓겨 달아나던 중 울지로 5가 인쇄골목에 있는 대현문화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두었다.

종로 5가에서 5시 35분경부터 시작된 이날 시위는 초반부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대열이 형성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쫓겨 다니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대열 내부에까지 백골단이 들어와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패고, 3백52여명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당했다. 이날 가장 많은 연행과 구타가 자행된 울지로 5가 천지호텔 주변 인쇄골목 앞은 이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연행당하는 학생들을 일부 구해내기도 했다. 당시 노수석 동지도 그 장소에서 피신차 들어간 인쇄소 안에서 의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결국 운명하게 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봄 부르는 비에 가슴 열며 너와 나는
 '교육재정 확보, 대선자금 공개'
 힘차게 거리를 흔들며 나섰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

죽음의 꽃샘추위 밀어닥쳐
 우리를, 너를 마구 몰아부쳐
 흡사 전쟁터처럼
 나와 너는 골목골목을 내달렸지만
 끝까지 쫓아오던 무리, 무리들
 아! 그만 너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 유고글

〈낙서집에서〉

11. 11.

1학기때는 천둥에 적응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천둥 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는 나를 볼 때 다른 천둥인들을 보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다. 고등학교때까지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고 공부 해야할 때는 공부하고 할 일 없을 때는 놀고 고민이라고는 성적 떨어졌을 때 고작 해보았던 것 같다. 물론 몸이 피곤할 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느끼지 못한 나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해보았고 괴롭기도 하다.

항상 웃고 다니고 긍정적, 낙관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 나 이외의 세상의 다른 문제들에 좀 더 진지해지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힘이 든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 굳어진 나의 성격, 생활을 바꾸기가.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살자.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의의있는 것으로 보도록 노력하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자. 뒷날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천둥방 낙서장에서 노수석 동지의 글〉

◎ 추모글

〈시〉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대선자금 공개와 등록금 인상 반대의 집회에서 수석이 죽었다.

수석아

다음날에 알게된 너의 이름을 부른다.

수석을 살려달라는 절규, 높기만 한 거리에서

내가 죽었다고 유인물 한 장 건네며

지나가는 이들의 옷깃을 하염없이 붙드는 것밖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역사는 강이 되어 흐르고

엇갈린 물줄기 어느새 하나로 만나는 길목을 향해
 소리없이 흐르고

봄꽃보다 애먼 스무살의 나이로

봄꽃이 다 피어오르기도 전에 쓰러져간 너를 부른다.
 들것에 실려 동지들 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지는

너의 시신은 신문지 조각마다에 인쇄되어 있는데
 더운 피로 맥락치는 네 손목 꼭 잡아볼 수 없는 오늘 너를 부른다.

너도 나처럼 너도 우리들처럼

실례는 가슴으로 새내기를 맞는

스무해 살아온 세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맹세를 다지고
 너를 보내는 오늘처럼 깃발 나부끼는 거리에서 어깨걸고

노래부르며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을텐데

어느 것에서인들 두 눈 편안히 감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렇게 가슴찡는 말들을 끌어올리지 않

아도 될까

다시 한 번 피를 부르는 조국의 하늘에 찬비가 내리고

모순의 세상에서 태어나 차디차게 식어가는 너를 부른다.

주저앉아 통곡하며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수석아

너 먼저 봄길을 내었으니 그 길을 따라 달려간다.

썩여 쓰러지는 걸음걸음 일으켜

오욕의 강 건너기 위해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우리들 가슴에 새겨진 맹세가 되었으니

〈故 노수석동지의 죽음 앞에서〉

〈주위의 글〉

우리는 최근들어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과 장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매일 길에서 만나는 경찰들의 방망이는 언제부터인지 군사독재시절 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경찰들이 시위대를 다루는 방식도 거칠기 짝이 없었다. 결국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장비는 또 다시 이런 비극적 사건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현정권이 걸로로는 문민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를 오히려 갖지 못한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경찰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식으로 국민을 억압했던 모든 권력들이 어떤 말로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날 시위가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주장이 전국민들의 호응과 공감을 갖고 있는 "대선자금 공개" "등록금 인상저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폭력은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주목한다. 학생들은 돌이나 화염병을 전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의 전개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강경진압으로 노군은 사망한 것이다. 이것은 그날 연행된 학생 숫자가 352명에 달하고 학생 다수가 부상했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군의 시신에서 보인 상처들은 명백한 경찰폭력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 협의회 성명서 中〉

진철원 (당시 20세)

墓



- 1976년 1월 4일 출생
- 1995년 2월 대원고등학교 졸업
- 1995년 3월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입학, 민족사 연구회 '1 일' 활동 시작
- 1995년 8월 잠시 동아리 활동 중단
- 1995년 12월 장현구 선배의 사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다시 활동 시작
- 1996년 4월 6일 밤 9시30분 경 총학생회실에서 분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경원대는 91년, 최원영 재단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고질적인 사학비리와 95년 108명 제적 등 무리한 학생 징계, 고발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는데, 95년 12월4일 분신 운명한 고 장현구동지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이 4달 남짓한 상황에서 벌어진 연속적인 분신운명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었다. 당시 경원대는 학교당국에 대한 고 장현구 동지 명예회복 요구과정에서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비롯한 6명이 제적, 8명이 무기정학, 2명이 유기정학을 당하는 한편 7명의 학우들에 대한 고발 및 공권력 투입으로 95년 총학생회장 백승규(무역90)학우가 구속을 당하고 나머지 6명의 학우들은 수배상태에 놓여있었다.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을 종합 판단했을 때 진철원 동지의 죽음은 이러한 학내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고교선배(고 장현구 동지)의 분신사망과 동아리, 학과의 선배동지들이 제적, 고발 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최원영 재단의 살인적 학원운영에 항거, 분신운명한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심장이 펄펄 뛰며 오를 때,
양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옆에서 힘들어 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나는 나서지 못하고
비겁자처럼 놀고 있다.

1996. 3. 23. (현구형 투쟁 100일째 되는 날 - 진철원 동지의 유고 글)

◎ 유고글

<일지>

저, 진저리*는 생각합니다.
96새내기들이 모든 일에 열심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배가 될 때는 알겁니다.
내 마음을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열심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96. 4. 6.

P.S. 김영삼 X새끼

<진저리 : 진철원 동지의 별명>

권희정 (당시 23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73년 5월 서울 출생
- 1992년 2월 고척고등학교 졸업
- 1992년 3월 성신여대 사범대 국민윤리교육과 입학 제 14대 대선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 1993년 불교학생회 회장, 시사토론 소모임 "물결" 결성
- 1995년 사범대 학습부장 활동
- 1996년 2월 총학생회 정책국장 활동
- 1996년 4월 7일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한 재단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 및 총장실 검거농성중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996년 '예결산안 공개', '등록금 소위원회 재개' 등을 요구하며, 학원자주화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그 당시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었던 권희정 동지는 총학생회 총학생회장과 함께 학원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로 학교측이 즉각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은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동지는 단식 도중 급격히 건강이 안좋아진 상태에서 감기까지 걸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급기야 4월7일 새벽 1시경 고대안암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밤 11시30분경 갑작스런 심근염으로 운명하였다. 단식으로 급격히 몸이 안좋아진 상태에서 감기바이러스가 심근염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총장으로부터 권희정 동지의 죽음에 대한 공개사과를 받아냈으며, 학생들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

◎ 유고글

<글 1>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학자투쟁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함도 있었는데 해보니 어려움이 정말 많더군요. 그러나 새삼 많이 깨

지는 느낌입니다. 학교와 재단이 그렇게 나쁜 줄도 잘 몰랐고 우리들의 결의가 정말 요구되는 싸움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고 해도 우리 학우들의 맑은 눈빛이 있고 오늘을 반성하며 내일을 힘차게 살아가려는 우리 동지들이 있는 한 승리가 저기 앞에 와 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나로부터의 결의, 결사라는 말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힘들어 하는 동지들에게 따뜻한 사람! 그러나 진짜 분노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총학생회장님과 더불어 단식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총집이 문득 모두 보고 싶군요. 제각기 다른 개성과 특성들로 어우러진 채 잡음이 들려올 때도 많지만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 소중한 나의 동지! 그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는 선배로서, 일꾼으로서, 동지로서 새롭게 거듭 나아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편집한 신문은 내 손에 꼭 쥐어주던 나의 착한 후배들에게 좀더 당연한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은 옵니다. 승리가 바로 저기에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주저 앓으실건가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학우들과 함께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성신을 자주 학원으로 만

습시다. 그 길에 언제나 당차게 앞장서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정책국장 권희정 드림

<글 3>

하루에 한끼만 굶어도 큰일나던 제가 자그만치 9일을 굶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도 안 고프고 몸만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총학생회장님이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쓰러져도 학교는 무대응에, 학우들에게는 제적이라는 위협뿐입니다.

결코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꼭 2차 비상총회를 사수해 냅시다.

총학생회 정책국장 드림

<단식 9일째이던 4월 2일 아침에 일꾼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쓴 글>

◎ 추모글

당시 투쟁 결의문

권희정 열사는 김영삼 정권의 반교육적인 행태와 학교당국의 비교육적인 횡포에 의해 죽어간 것입니다. 권희정 열사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끝내 꽃다운 청춘을 채 피기도 전에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처절하게 받아들여 단식을 하는 열사에게 써는 한 냉소로, 시간끌기 작전으로 기만한 학교당국과 학교와 교육을 최고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쓰레기장으로 만든 김영삼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우리 학우를 죽음으로 내모는 학살자입니다. 우리 6500 성신인을 비롯한 한총련 백만 청춘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학교측은 애국학생 고 권희정 학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할 것이며,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는 총사퇴하라

1. 등록금의 근거있고 합리적인 책정을 위한 정당한 요구였던 예결산 전면공개와 등록금 소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라

1. 예결산 전면 공개를 의무화하고 등록금 협상기구를 학칙에 명시하여 제도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성신 상황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1.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인 국가 교육제정을 대폭 확충하고, 531 교육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황 혜 인 (당시 20세)

墓 化 장



1976년

강원도 고성 출생

1995년

속초여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입학

동아리 행소문학회 가입

1996년

동아리연합회 선전부장

1996년 4월 16일

오후 12시 30분 노동해방을 염원하며 분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6년 4월16일 성균관대학교 울전 캠퍼스 학생회관 3층 여학생 화장실에서 물리학과 95학번 황혜인 동지가 분신, 자결하였다. 언론은 황혜인 동지의 죽음을 총선패배에 대한 비판자살로 보도했다. 과연 그런가. 성균관대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공식입장과 동지의 유서, 글들을 살펴보았을 때 동지는 김영삼정권의 민중탄압에 맞서 노동해방, 민중해방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살아남은 이들에게 절규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바쳐 산화해 간 것이다.

◎ 유고글

(일 기)

내몸이 타가고 있다. 죽음이 눈 앞에 보인다. 관념론자들은 날 정당치 못한 행동이라 하겠지. 유물론자들은 날 비겁하다 하겠지.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해 이 길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옥에 가도 나는 상관없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정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의 변함이 있길 바랄 뿐이다. 난 노동해방을 보고 죽기를 바랬다. 그러나, 나의 역량은 날 이길로 선택하게 했다. 뜨겁다 괴롭다.

부모님의 얼굴 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간다.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노동해방을 위해 정권타도를 위해 자본가 타도를 위해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기만을 난 지금 바랄뿐이다... 이제... 그 실천을 동지들이 해주길. 결의를 해야할 것 같다. 더 이상 개념없이 산다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신이 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노동해방 노동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세요

◎ 추모글

<결의문>

동지의 죽음을 투쟁으로 보답하자!!

故 황혜인 동지의 죽음은 분명히 비판자살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후 김영삼정권에 의해 수 많은 동지들이 산화해 가셨다.

어용노조의 희생자 김시자 동지, 살인철거의 희생자 신연숙 동지, 병역특례해고자 조수원 동지, 살인철거 공권력의 폭력 희생자 이덕인 동지,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장현구 동지, 대선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 요구 중 살해당한 노수석 동지, 사학재단에 맞서 싸우다

분신한 경원대 진철원 동지, 등록금투쟁 후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권희정, 동지. 고 황혜인 동지는 이들의 죽음이 우리의 투쟁으로 힘있게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자신 역시 동지의 죽음을 강고한 투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무얼하며 밤을 지냈던가 대자보 문건을 만들었고, 지난날 쓴 대자보 28장이 나의 노력의 댓가라 생각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분노하라 외쳤지만 분노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고, 투쟁하라 외쳤지만, 투쟁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았다.”

-(동아리연합회 날적이 중 4월 8일에 황혜인 동지가 적은 글)

故 황혜인 동지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투쟁하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강고해 지는 김영삼 정권의 민중탄압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해방을

위해 더욱 더 분노할 것을, 더욱 힘있게 투쟁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 언론에서는 황혜인 동지의 죽음을 총선의 패배에 대한 비판과 개인적인 고민으로부터 돌출되어진 비판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제도 언론과 정권의 이러한 축소, 왜곡보도를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힘있게 깨뜨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 황혜인 동지의 죽음이 단순한 고민속에서의 비판자살이 아닌 전체 민중운동 진영과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결의, 우리에게 보다 더 강고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몸짓임을 알려낼 것이다.

동지가 적은 마지막 글귀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자.

“노동해방 노동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세요”

<성균관대 총학생회>

오 영 권 (당시 19세)

慕 여수 시립 묘지



| | |
|--------------|--|
| 1976년 | 여수 출생 |
| 1992년 | 여수고등학교 입학 |
| 1995년 | 여수 수산대 식품공학과 입학, <청경>교지편집국 활동 |
| 1995년 6월 13일 | 여순총협 연합투쟁 중 직격탄에 왼쪽 눈 실명, 휴학 |
| 1996년 4월 19일 | 교지 편집국 학술부장 4.19집회를 마치고 국동캠퍼스에서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이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분신,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오영권 동지의 학과생활은 모범생이라 할 정도로 학우들과는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 대학 입학 후 첫해인 1995년에는 여순총협 연합투쟁 중 직격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고, 휴학을 했다. 이듬해 1학기부터 복학하여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지 학술부장 활동을 하다가 4.19 집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 사망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는 학과나 교지편집국 생활에서 보여 주었던 것이 매우 모범적이었다. 착하고 고집이 좀 센 편이었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주변이 없지만, 떠들떠들 거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처럼 굽히지 않으려고 했었다. 왼쪽눈을 실명한 후에도 집안 물래 교지 활동에도 열성을 보였다. 96년에는 노수석동지가 사망하였고, 진철원, 황혜인 동지가 분신하였다. 같은 95학번들이 계속 분신,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정부는 변한 것이 없자, 이러한 현실속에서 같은 학우의 죽음을 아파하였다. 동지는 조국의 현실을, 민중의 고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하였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하다 우리에게 그는 자신의 몸을 살라 보여주었다.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 유고글

<동지의 글 1>

같은 95학번이건만

<1>

같은 95학번이건만

너희 먼저 떠나는구나

내 영원한 동지들

너희들의 얼굴도, 이름도

낯설지 않고...

우린 어디선가 아니,

한총련의 깃발 아래

함께 모인 적이 있기에

그리고 너희들의 빈 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

불타는 적개심으로

<2>

같은 95학번이건만

너희 먼저 떠나는 구나

내 사랑하는 동지들

너희들의 글도, 외침도

낯설지 않고...

우린 어느 순간엔가 아니

조국의 부름앞에(조국이 부를 적에)

함께 투쟁한 적이 있기에

그리고 너희들의 빈 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
가열찬 투쟁으로

<3>

수석아
혜인아
곧 통일 조국의 품에
묻어 주겠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하련다.

<1996. 4. 18 목요일>

<동지의 글 2>

별난 친구

노동시집을 옆에 끼고 힘차게 민중가요를 부르는
한 학우 우리의 별난 학우
최루탄 냄새 진동하는 상처 투성이인 한 학우
우리의 별난 친구
그는 별나고도 평범한 우리의 친구

<동지의 글 3>

이젠 학우 여러분이 운동권이라 부르는
학우에 대한 편견을 버립시다.
그들은 여러분과 수업도 함께 듣고
함께 식사도하는 평범한 학우들입니다.

단지 다른점이 있다면
조국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대열(한총련) 속에 끼어 보십시오
한총련은 조국과 학우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영권 동지의 유품중에서)

◎ 추모글

분신, 그리고 1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도 조국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피끓는 인간사랑의 정신을, 그리고 그들 못까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짐이 있음을, 여러분 이
제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현실참여의 의지를 가
지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소외받는 다수의 민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도 사랑해 먼저간 그들이 있기에, 식민지 조국의 아들,
딸이기에, ‘오영권열사’는 이제 정말 웃으며 살아갈 것
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리 승리의 그날까지 진군해 나갑시다.

박 동 학 (당시 23세)

墓 대구 현대공원



| | |
|--------------|---|
| 1973년 3월 21일 | 경남 합천 출생 |
| 1991년 | 경남 거창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단지' 회장 거창지역 고등학교 동아리연합 활동 |
| 1992년 3월 | 대구공전 전자계산과 입학 |
| 1993년 |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역임 |
| 1996년 | 대구공전 총동아리 연합회 조직국장으로 활동 |
| 1996년 5월 6일 | 학생자치권 보장 투쟁 중 학교측의 학생자치권 탄압과 기만적 작태에 분노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학생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불이 붙어 전신 3도 90%화상을 입음 |
| 1996년 5월 8일 | 24번째 생일날 남은 동지들이 못다한 투쟁들을 다 할 것을 믿으며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대구 공전은 매년 15% 정도의 등록금 인상과 모든
것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려는 재단측의 비교육적
모습, 대학생이라면 응당 누려야할 기본적인 자치 활동
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총동아리 연합회
에서는 96년에 동아리 자치권보장, 지도교수제 폐지, 신
규동아리 인정권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였다. 그런
데 학교측은 박동학 동지가 각과의 실험실습비 등 여
러문제를 걸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겠다는 트집을 잡으
면서 학생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우 서명지와 7개
요구안을 백지화시켰다. 급기야 동지는 온 몸에 휘발유
를 붓고 다시 한 번 학장과 학생과장의 면담을 요청했
다. 이 과정에서 의문의 불(학생과장이 불을 붙였다고
동지가 얘기함)이 붙어 96년 5월 8일에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1996년 5월6일 학생자치권 보장에 대한 7개요구안
이 백지화되자, 박동학 동지는 “너무 분하다” “당장 학
생과로 가서 담판 짓겠다”고 얘기하며 휘발유를 사들
고 당일 오후 4시20분경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과 함께
들어간 학장과 학생과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
생과 직원들은 면담은 커녕 비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급기야 동지는 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다시 한 번

학장과 학생과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때(4시30분
경) 우연히 학생과로 학생과장이 들어왔다. 동지는 학
생과장을 향하여 학생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을
당기겠다고 외쳤다. 그러자 학생과장은 “그래라 이 새
끼야!”라는 등 온갖 욕설과 비웃음을 보였다. 학생과장
의 태도로 인해 동지가 몸에 불을 붙일지도 몰라 만약
의 사태에 대비해 동원회장이 소화기를 구하러 간 사
이에 몸에 불이 붙었다. 이후 동지의 말에 따르면 동지
가 들고 있던 라이터가 떨어지자 학생과장이 그 라이
터를 주으면서 동지의 등 뒤쪽에서 불을 당겼다고
한다.

이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동지는 시종일관 “내
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학생과장이 그랬다”고 얘기했으
며 병원에 도착한 후 가족과 선배, 기자, 의사, 형사등
이 있는 자리에서 “민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학생
과장이 등뒤에서 불을 붙였다” “학생자치권 반드시 확
보해야 하며 자주학원 건설하고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
루어야 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동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 추모글

<추모의 글>

박동학 열사!

난 아직 당신을 열사라 부르며 홀로서기엔 너무나 나약한가 보오.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가장 못나게 굴었던 나였으니 말이오. 5월 8일 당신이 우리를 떠난 후 난 분노와 투쟁보다 슬픔으로 일관했으니 말이오. 떠난 당신에게 우리 서로 믿자. 다시 꼭 만나자. 우리 추억을 못다한 투쟁들을 약속을 기억하자고 당신이 맹세를 다 지킬 강요했는지도 모르오.

당신과 함께 할 때 우린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서로의 옛 추억을 알려고 하지 않았소. 그때 우리 서로 많이 알려 하려 들지 않았던 건 훗날 살면서 만날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오. 작은 부분 당신과 웃으며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고, 난 당신과 함께 하던 그 짧은 시간 당신과의 추억을 이렇게나마 만든걸로도 감사하오. 함께 할 때 당신 속 썩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미안하고 용서 받을 것이 있다면 이제 용서해주오.

난 아직도 당신의 그 해맑고 순수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오. 지금도 찾아와 다독여 줄것만 같소. 난 믿소. 당신이 함께 하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도 있다고. 그렇지 않소?

5월6일 사고후 10여일 후에야 당신이 누워 있는 병원에서 학교로 오면서 우리 동지들의 투쟁들을 보았소. 아니 당신도 보았을 것이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동지에 대한 의리로 분노로 원칙을 세워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며 난 당신이 자랑스러웠소.

학우들이 투쟁의 대오에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힘들어 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학우들은 안다. 놈들의 그 기만적 작태와 탄압을. 학생회는 어용적 태도를 취하지만, 우리가 원칙을 세워 힘있게 투쟁하면 학우들은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우리 놈들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도 학생자치권 쟁취, 자주학원건설, 민족해방, 조국통일 그날까지 힘있게 투쟁하자고 얘기했소.

동지들을 서로 잘 알기도 전에 함께 투쟁을 하면서 우린 당신이 고마울 때도 있었소. 아마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에서 천막농성은 처음이었을 것이오. 다섯 번이나 철거되어도 우린 좌절하기보다 더욱 튼튼한 천막을 만들었소. 그리고 학우들의 의식 변화도 봤

고 재단의 떨림도 보았소.

또 전국 50만 전문대 학우들이 우리 5명 천막농성단을 5인 전사라고 부를때 당신에게 죄스러워, 우리 동지들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소.

영정에 바칠 종이학이 유리관에 채곡이 쌓이는 걸 보면서, 본관앞에 자주학원건설 학생자치권 쟁취라고 써놓은 돌탑이 높아질 때, 서명총화판을 보며 본관함의 방문에서 하루 피로를 다 풀 때도 있었고, 교내 곳곳에 노란 수건이 걸려질 때 우린 너무나 큰 힘들음을 얻었소. 밤새워 쓴 현수막과 대자보가 언제나 갈갈이 찢겨지고, 한줌의 재로 우리 앞에 높여질 때 비오는 날 천막이 칠거당해도, 교수와 경찰들이 우리 동지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대할 때도 우린 그러한 탄압에 더욱 굳건히 서며 강해질 수 있었소.

부모님이 학교에 오실 때 병원으로 찾아뵈러 갈 때 병원에서 함께 있을 때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한 게 당신에게 미안하오. 넷째 누나인 동선이 언니가 이대로 동학이를 보낼 수 없다고 휘발유를 들고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본관앞 분향소 당신의 영정을 안고 소리내어 우릴 때, 우리도 함께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소.

하지만 난 보았소.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던 가족인가를 보았고 늦게나마 당신의 뜻을 헤아려 주시는 가족들이 너무나 고마웠었소.

당신 사진앞에서 부모님 앞에선 울 수가 없었소. 가슴으로 울며 투쟁의 결의를 높이며 당신을 그리워했소. 우리 동지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과감히 정신차리고 힘내자고 얘기하오. 예전처럼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 가슴 앓지 말고 우린 당신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소.

동지를, 투쟁의 역량, 그리고 가슴 속 또하나의 당신.

박동학 열사

당신과 세웠던 울 한해 사업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소. 당신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신을 죽인 적들에게 복수의 칼날 세우고 반드시 그 칼날로 내리칠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피 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겠소.

당신이 힘있게 투쟁하던 통일 투쟁도 물론이오.

그래서 이제 다신 5월이면 아니 언제라도 우리 청년학도의 7천만의 가슴에 검은 리본 달지 않는 그런 세

상 만들겠소. 당신은 알거요. 우린 벌써 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박동학 열사. 아무 걱정 마시오.

우리 투쟁이 다소 오류와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삶과 당신의 그 치열하고 순결하던 삶으로 다시 서야 될 때인 것 같소.

당신이 너무나 그리고 슬프오. 어쩔 당신은 바보였소. 그러나 어느 곳에도 당신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오.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아파 하는 사람이 많소. 당신 생각이 날 때 마다 분노의, 복수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갈겠소.

당신에게 부탁이 있소. 영원히 우리 가슴에 살아 함께 투쟁하오.

박동학 열사.

한 번 우리 가슴 아파하는 동지들과 술 한잔할 날을 기약하오.

다시 만날 것을 믿소. 우리 믿어 이제 편히 쉬오.

1996년 6월 30일

당신을 보낸지 54일 된 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

한 상 근 (당시 26세)



| | |
|--------------|--|
| 1971년 | 전북 김제 출생 |
| 1990년 | 금산상고 졸업 |
| 1991년 | 대한체육과학대 (현 용인대) 격기학과 입학 |
| 1994년 | 복학, 농촌문제연구회 <흙사랑> 활동 |
| 1995년 | 용인대 9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 1996년 | 동아리 <흙사랑> 회장, 총학생회 정책국장 일본의 독도망언 항의차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중 일본 대사관 넘어감 이에 불구속 처리됨 |
| 1997년 | 용인대 11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형찬 대책위에서 15일동안 농성단 활동 용인대 학자추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소위원회 위원 |
| 1997년 2월 10일 | 04:30 분신 |
| 1997년 2월 13일 | 12시 15분 영등포 한감성심병원에서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시대의 양심을 실천했던 한 청년.

꾸밈없으며 소박하고 언제나 따뜻한 웃음으로 감싸 주었던 소중한 사람.

전태일 평전을 읽고서 열사의 삶을 배우겠다고 자신을 바보회장이라 불러달라던 꾸밈없는 솔직한 모습을 가진 청년.

"정도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는 사회, 인간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높은 사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사회 현실을 바꿔내고 사랑과 의리가 넘치는 세상을 후세에게 남겨주고 싶다"라고 말했던 한 청년이 지난 2월 10일 새벽 4시 30분경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분신을 기도했다.

한상근 동지는 병원 이송중에도 동료 학우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달라! 괜찮으니 너무 걱정마라!"를 계속적으로 외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뚜렷한 유서나 구호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운동의 길을 걸어 가며 힘들어 하는 동지들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갈래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 듯하다.

또한 KBS기자의 "무슨 문제로 분신을 했는가? 학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한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상근 열사의 분신은 학원자주화 투쟁의 과정속에서 학우들의 동참과 학교당국의 일방적 학사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그러나 용인 경찰서에서는 집안문제로 분신자살하였다고 한겨레 신문에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당국도 단순 비판자살로 몰고 갔다. 또한 한상근동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공식적 성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생대책위와의 협상 중에도 계속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였다.

동지는 평소 "나는 조국과 연애하고 조국과 결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의협심이 강해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96년 일본의 독도 망언이후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시 출연 대사관 담을 넘어 한국 청년의 기개를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작년 12월 경희대 김형찬 학우가 안기부 요원에 의해 불법연행 당해 경기도 대공분실에서 분신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대책위 농성단에서 15일 이상 활동을 하였고 날치기 노동 악법, 안기부법 철폐 투쟁에 항상 앞장서기도 하였다.

동지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밤낮없이 뛰어나고 97년 용인대가 '대학종합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산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우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학교당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의 삶은 언제나 학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항상 투쟁하는 삶이었다.

허리잘린 한반도의 현실과 농민, 도시빈민, 철거민

등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자신이 '흙사랑'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절절히 염원하였다.

한상근 동지는 이처럼 조국 사랑 민중사랑에 항상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나 그렇듯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가 남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때로 자신에 다가오는 안락함과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고민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열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나약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듯 동지의 숭고한 조국사랑, 학원사랑, 민중사랑의 정신과 순결한 양심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더럽혀 질 수 없는 것이다.

열사가 생전에 그렇게 따라 배우려 했던 바보회장 전태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애국 청년 한상근 동지를 보내며 우리는 그가 남긴 글을 되새겨본다.

부끄럽고 비겁하다!

더러운 생각을 한다!

나약하고 개인주의에 물든 내 자신이 정말 싫다.

진철원 열사가 생각한다.

양심이 꿈틀거릴 때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양심도 없었는가?

나는 죽은 것이다.

수많은 열사들이 죽었을 때 죽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노라고 맹세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가!

동지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 두었을 때

나는 무어라 말했는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96년 여름 농활에 쓴 것으로 추정됨>

◎ 유고글

<동지의 글 1>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무척 망설이다 대답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참된 삶이란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다. 정의로운 삶 바로 나의 심장에 묻힌 양심을 꺼내어 불의를 깨기 위한 삶이다. 또한 실천이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옳다면 한다. 동

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며 비겁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수성이 없는 삶이다. 나는 부끄럽게 살기 싫다. 비겁하게 살기 싫다. 세상에 적당히 걸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죽는게 낫다. 나는 참된 삶을 살 것이다. 애국하며 살 것이다. 어제 드디어 경원대 학우들이 승리의 깃발을 향해 7천 학우들이 어깨동무하며 거리로 거리로 나가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든 이에게 비수를 꽂고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열굴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결코 갈라놓을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흙사랑입니다. 사랑과 의리 믿음으로 모인 흙사랑입니다. 주위에 있는 그 어느것이 우리의 사랑과 의리를 깨려고 한다면 맞서 싸웁시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 합시다. 싸웁시다. 함께 한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 오는 조국이 있고 동지가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의 글 2>

나는 지금의 사회가 싫다. 정도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는 사회. 인간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높은 사회. 농촌의 꼬마녀석들이 해맑은 웃음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사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 그것도 모자라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도 유일하게 도와주지 않는 조국

나는 지금의 사회가 싫다.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에게 물어보겠지! 나는 자랑스럽게 말을 해주고 싶다. '응'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조국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나는 비겁자가 되려고 한다. 개인의 안락만 찾으려고 한다. 아직도 나에게 개인주의가 많은 넓은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스러운 흙사랑 동생들에게 희망을 줄거다. 다시금 사랑이 넘실거리는 흙사랑을 만들 것이다. 흙사랑 동생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결코 우리에게 개인주의와 넓은 사상 그리고 비겁한 삶 개인의 안락같은거 하고는 어울리지 않는가 보다. 돈은 없어도, 잠을 제대로 못자도, 여가 생활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과 사랑이 중심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념과 실천 그 속에서의 우리들의 끈끈한 동지애로 모든 행복을 찾는가보다. 농촌교

마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과 밝고 희망이 있는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하자. 후배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후배들에게 사랑과 의리의 공동체 사회를 물려주자. 우리는 갈갈이 찢겨 길바닥에 나뒹굴더라도 후배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조국을 물려주자. 그러면 후배들은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전설처럼 이야기 하리라.

〈동지의 글〉

혹사랑 식구들 보게나
나도 여러분과 단 일초도 떨어져 있기 싫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여러분을 챙겨 주고 때로는 배우면서 함께하고 싶다!
눈물도 같이 흘리고 슬 먹고 죽을때까지 같이 마셔 보기도 하고 싶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번만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비록 몸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같이하지 못하고 있지만 혹사랑 회장으로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지들 주위에서는 동지들이 불길에 휩싸여 소리치며 죽어가고 맞아서 죽고 아직도 광주의 어린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임신부 처녀의 젖가슴을 두부처럼 자른 학살자들은 잘못없다고 법정에서 큰소리치고 있고 반인륜적인 학살을 배후조종한 자유의 수호신 미국은 공개사과조차 하지 않고 농민아저씨의 이마에 주름살은 계속 늘어나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 쌀 100g과 나무껍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철거민들 노점상인들은 정부가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면서 강제로 철거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노동자는 아직도 일만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보면서 이것들을 외면하고 혹사랑 회장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사랑은 이러한 불의를 외면한다면 이미 혹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사랑 동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동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 많이 힘들고 지치고 슬퍼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갈갈이 찢어져 죽어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아무리 가슴아픈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울지 맙시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동지들이 힘들다고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끌어주고 그래도 못간다고 한다면 업고서라도 갑시다. 뛰어가지도 말고 한발 한발 동지들과 함께 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주어도 갈길은 갑시다. 끝까지 못가겠다고 울기만 한다면 버리고라도 갈길은 갑시다.
-갈길을 멈출수 없습니다. 뒤에서 울기만 한다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갈길은 가야겠습니다. -번만-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투쟁!
끝까지 경인총련 출범식을 사수했던 조국의 아들, 딸들, 비내리고 줄리는 것을 참으며 오직 경인총련 강화만이 민족해방을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여 우리는 열심히 팔뚝을 치켜 울리며 목청터져라 소리치며 수원거리를 내달렸지!
그 모습은 희망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
바로 애국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지!
집안문제, 개인적인 고민, 최루탄, 백골단 그 어느것도 막을 수 없어! 우리는 계속 전진 뿐이야.
·
(96년 5월6일 경 쓴 것으로 추정되는 동지의 글)

류 재 을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77년 11월 광주 출생
1990년 광주 장산 초등학교 졸업
1993년 광주 북성중학교 졸업
1996년 광주 광일 고등학교 졸업
1996년 조선대 행정학과 입학
과소모임 지방자치제 연구반 활동
1997년 지방자치제 연구회 분과장 역임
1997년 3월 20일 시위 도중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류재울 동지는 김영삼 정부의 총체적인 부정, 부패, 부도덕, 폭력성에 입각한 반민족 반민중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남총련 주최로 1997년 3월 20일 오후 2시에 조선대학교 18극장에서 열린 개강선포식에 참가하였다.
전경과 학생의 대치중 사수대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류재울 동지가 97학번 후배에게 깃발을 넘긴 후 맨 앞에서 전경과 대치하여 투석전을 전개하던 중, 시커먼 물체에 맞고 주춤거리며 뒤로 몇발자욱을 물러서다가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파란색 티코를 타고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경 결국 운명하게 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재울이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합시다.”
그가 우리곁을 떠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편안한 곳을 차지 못하고 온 몸이 얼어붙은 채 냉동보관 되어 있고, 밖은 그의 얼어붙은 육신을 서로 차지하려는(?)쟁탈전이 벌어졌다.
부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경찰측과 한 번 죽은 자식 두 번 죽일 수 없다는 부모님과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학우들은 날밤을 새워가며 그를 지켜야만 했다.
5월16일 마침내 그를 따스하고 편안한 곳에 안치하기 위해 10만 학우들이 장례식을 거행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측의 진압에 의해 정문도 채 벗어나지 못

하고,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찰측과의 격투로 그의 시신만이 썩어간다. 밤이 깊어 가는 이 시간에도 밖은 최루탄과 화염병이 날리고, 재울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영혼을 깃들이기 위해 목이 쉬어라 외치고... 우리 학우의 목소리에 편안히 집에 있는 나는 미안스럽기만 하다.

— 중 략 —

재울이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또 그의 죽음으로서 오는 한과 슬픔을 같이 나누어 같은 조대생으로서 같은 대학인으로서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항상 의식 속에 내재할 수 있고, 항상 같은 의식을 가지는 그런 동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조선대학교 신문 중에서)

◎ 추모글

〈글〉
재울이가 가는 길에 또 다른 재울이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20일 ‘한보비리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남총련 집회과정에서 숨진 고 류재울동지의 장례식이 5월16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김영삼정권의 원천봉쇄와 폭력진압으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다치고 있고 고 류재울 동지의 영구는 조선대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경남연합은 끊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야수와 같은 폭력에 의해 쓰러져간 재울이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김영삼은 더러운 손길로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재울이가 폐쇄포그와 최류탄, 심지어 총탄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범민족부산경남연합은 김영삼정권이 고류제를 동지 장례 행렬을 가로 막고 <자연사>나 <강제부검>을 들먹이는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한총련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할 뿐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김영삼 조기타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류제를 동지 장례위원회에서 낸 "항쟁의 불꽃" 중에서>

<시민과의 대화>

류제를 동지 장례투쟁과 관련한 대시민 5문 5답
여론조작...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유가족과 학생들은 왜 부검을 반대하는가. 부검을 하면 사인이 규명될텐데...

부검하면 일반적으로 수술형태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디어디 들춰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부검은 몸을 구성하는 부분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싸라기 같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분한데 이렇듯 잔인한 일을 어느 부모가 순순히 허락하겠는가. 부검을 반대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두 번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시위도중 사망한 김귀정, 연세대 노수석군 역시 경찰의 살인적인 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통해 단순 심장마비로 노군의 죽음을 은폐시키고, 경찰은 책임을 회피했다. 심장이 멎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는가. 류제를 동지는 부검을 하면 심장마비라는 결론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고 시위도중 사망한 것 또한 경찰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검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다.

2. 왜 하필이면 5.18 17주기 즈음에 장례를 치르려 하는가.

폭악무도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2천여명

이 목숨을 바친 5월. 그런 5월에 부패·비리·폭력정권 김영삼정권 타도를 외치며 죽어간 류제를 동지를, 순결하게 죽어간 2천 영령들과 함께 보내고자 4천만 국민의 아들로 아로새기기 위함이다.

3. 경찰에서 장례를 허용을 했다는데 학생들은 왜 다시 투쟁을 해야만 하는가.

류제를 동지는 분명히 3월20일 김염삼 정권타도를 외치며 시위도중 사망했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학생들은 시위도중 폭력살인 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책임자 처벌(동부서장, 동경찰서장)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20일 돌연사 처리, 사건 종결 등의 내용으로 장례식 일정을 막지 않겠다는 식으로 발표함으로써 동지가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또한 20일까지 5일간의 장례투쟁 과정에서 여론이 학생들쪽으로 불붙듯이 일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장례식을 허용한다는 보여주기식 내용으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인 투쟁을 벌이는 학생들만 나쁜놈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동지를 묻는다면 자연사로 류제를 동지를 묻는 것이 되며 이는 동지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또 다시, 끝까지 투쟁하여 동지를 보내고 정권의 교활성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다.

4. 학생들이 시신을 불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시신에 염을 한지 6일째, 굳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인하면 곧바로 땅에 묻어하 하는 법이다. 또한 발인을 한지 6일이 되도록 길 거리에 방치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이다.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시신이 고이 땅에 묻히는 것을 가로막는자는 누구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친구의, 후배의, 선배의 시신이 거리에 누워있는 것에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5. 학생들의 투쟁은 찬성한다. 그러나 최루가스, 화성기,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학생들의 투쟁은 오늘까지 6일째다. 하지만 경찰이 16일 장례행렬을 막지 않았다면 평화로운 도청노제를

통해 류제를 동지는 망월동에 고이 묻힐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서 최루가스,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조대에서 도청으로 향하는 정문, 좌측고가도로, 우측산수동까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길목 곳곳이 차단되고, 폭압적으로 뿌려대는 최루가스, 최척이 등의 악성가스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는 바로 경찰과 정권이다.

이러한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시민들이 학생들과 하나로 단결하여 도청노제와 장례를 성사시켜 나가는 것이다.

<류제를 동지 장례위원회에서 낸 "항쟁의 불꽃"(97.5.22) 중에서>

류제를 동지 장례투쟁과 관련한 대시민 5문 5답
여론조작...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유가족과 학생들은 왜 부검을 반대하는가. 부검을 하면 사인이 규명될텐데...

부검하면 일반적으로 수술형태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디어디 들춰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부검은 몸을 구성하는 부분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싸라기 같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분한데 이렇듯 잔인한 일을 어느 부모가 순순히 허락하겠는가. 부검을 반대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두 번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시위도중 사망한 김귀정, 연세대 노수석군 역시 경찰의 살인적인 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통해 단순 심장마비로 노군의 죽음을 은폐시키고, 경찰은 책임을 회피했다. 심장이 멎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는가. 류제를 동지는 부검을 하면 심장마비라는 결론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고 시위도중 사망한 것 또한 경찰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검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다.

2. 왜 하필이면 5.18 17주기 즈음에 장례를 치르려 하는가.

폭악무도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2천여명

김준배 (당시 27세)

墓



| | |
|-------------|---------------|
| 1970년 | 전남 장흥 출생 |
| 1989년 | 광주대학교 금융학과 입학 |
| 1992년 | 광주대학교 투쟁국장 |
| 1993년 | 남총련 투쟁국원 |
| 1994년 | 광주총협 투쟁국장 |
| 1995년 | 남총련 투쟁국장 |
| 1997년 | 한총련 투쟁국장 |
| 1997년 9월15일 |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광주대 재학시절인 93년부터 수배를 받아오던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동지가 경찰의 과잉검거 작전으로 인해 97년 9월 15일 밤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김동지는 학교 후배 집인 광주시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은신해 있던 도중, 15일 밤 11시 50분경 김동지를 연행하기 위해 전남도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 24여명이 들이닥치자 13층 높이에서 케이블승을 타고 탈출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돼 심장시폐 소생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조기종결 방침에 따라 16일 오전 10시경 경황이 없을 부모님에게서 부검 합의서를 받아내고 바로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눈부위의 멍자국과 발가락 3개 골절, 간과 폐 등의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사망한 장소와 검찰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추락한 지점에는 1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높은 곳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상이 경미한 상처 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찰은 13층 높이에서 수배학생을 잡기위

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경찰의 기본수칙마저 지키지 못해 김동지의 사망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동지의 구타에 의한 사망이냐, 추락사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김군의 죽음은 지난 몇달동안 사회분위기를 휩쓸며 진행되어온 한총련 와해, 말살 책동으로 대변되는 공안탄압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과정을 무시한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검거작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정권은 학생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뽑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규정짓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단대회장, 간부들에게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했다. 특히 형사기동대와 보안수사대, 국군기무사까지 동원한 시국사범의 무자비한 연행과 오로지 특진과 포상만을 올리기에 혈안돼 있는 경찰의 태도도 비판받음이 마땅하다. 또한 경찰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프락치 활동을 강요해 왔고, 총기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을 연행해 가는 등 상식을 벗어난 무분별한 검거선봉을 일으키고 있다.

김군의 죽음을 부른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 유고글

일기

93년 1월21일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다. 설연휴를 잘 계획하고 실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른 동지들은 모두 집으로 갔다. 나는 금년 설에도 집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집안에 난리가 난 것 같다. 큰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고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 웬지 죄스러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사면복권 수배자 해제 문제를 들고 이리저리 소식을 알아봤나 보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금년 설은 아버지에게 가슴아픈, 적적하실 설이 될 것 같다.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큰 집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자식들이 없는 설을 보내며, 부모님께선 지금쯤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 저는 죽어도 갈 것입니다. 집에서는 군대문제 수배 문제로 자식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실텐데, 그런만큼 나 준배는 내 하루하루의 삶에 부합되는 모든 문제를 한별전사의 투혼으로 해쳐 나갈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에 내 모든 청춘을 걸고 하루하루의 일상 생활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한별전사가 되리라.

부모님의 고통이 이땅 기층 민중의 피지배계층들의 고통이요, 부모님의 삶이 처절하고 슬플지라도 거기에 위안을 주며 견결한 혁명가로 자식으로 4천만 애국민중의 자식된 삶을 살아가리라.

부모님 오늘 하루도 자식은 수배자로서의 몸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동생 모든 민중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던 하루였습니다. 올해에도 몸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항상 부모님의 아들 준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심려 마시고 꼭 건강하십시오.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선회누나 미희누나 정배 모든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설, 신년 연휴 잘보내고 1년동안 모든 일에 열심히. 정배야! 군대 생활 잘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자.

〈편지〉

형
하늘이 너무나 푸르는 날
휴가라는 설레임보다 서글픈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형 처음보았을 때, 처음 중앙에 올라와 제자리 찾지 못하고 걸도는 모습에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투쟁속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기 좋았어요.
93년 전, 노 체포결사대들이 끌고 연회동 진격투쟁속에서 보여준 형의 모습을 대선패배후 좌절해있던 우리에게 승리의 신심을 심어주었어요.
형 올해 초에 휴가나왔을 때 가을에 다시 만나서 술한잔 하자는 말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어요.
형 막상왔지만 용기가 없어 형 얼굴을 아직까지 볼 수 없소.
하지만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거야.
바라만 보아도 힘이 생겼는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내 가슴속에 함께 할거라 믿어 얼마남지 않은 군대생활 다시 처음처럼 투쟁할 수 있는 멋진놈이 될게
형 나 믿지 나도 형 믿어 날씨가 너무 쌀쌀해
가을 분위기가 너무 멋있는 형
첫눈이 내리면 볼 수있겠지...

〈인터뷰 기사〉

“93년 가을에 준배얼굴 마지막으로 봤제”
“장례식? 그거 학생들에게 다 맡겼어. 근디 꼭 망월동으로 가야해. 그것이 명예회복이니까..”
자신을 저세상으로 보낸지 8일이 지난 아버님의 모습은 너무도 초췌하여 얼굴만 뵈고도 가슴이 절로 저러왔다. 다소곳한 걸음걸이며 차분한 말투가 학생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속에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 음을 느끼면서 어버님과 대화 시작되었다.
[잠을 자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 근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전함이 밀려오

지, 일어나면 자식 영전에 피워주고 준배와 함께했던 생활들을 생각하지. 오래전에 내가 부탁하나를 하고 허락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한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자꾸만 생각나.]

아버님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그때를 회상하시며 하는 말씀이었다.

아버님과 어머니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93년 가을.

[93년 가을쯤 되었거여. 마누라랑 나랑, 준배랑 아침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그것이 마지막 만남임을 더듬기라도 하듯 아버님의 눈망울이 그렇 거렸다.) 내가 '여기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 했지. 그랬더니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어. 그 길이 민주화 투쟁의 길이라고 했던 것 같아. 아들이 하도 간곡하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마누라하고 준배하고 나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런 부탁을 하나 했어. '이 아비도 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너도 무슨일을 하든 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래서 지금은 준배 죽어있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 말은 거역은 안했구나' 하고 생각해.]

한 청년의 의로운 죽음은 개인의 결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주변의 환경도 중요함을 아버님의 모습 속에서 엿볼수 있었다. 열사가 열사다운 삶

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가정의 평온만을 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관심과 고통의 감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는 말에 아버님은 잔잔하지만 어느때 보다 다부지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다 말했어. 그사람들이 함께 생활했고 함께 고생했은께 하지는대로 해야지. 하지만 묻히는 곳은 꼭 망월동이어야해. 학생들 처럼 내 생각도 그것이 명예회복 이라고 생각하거든. 망월동 안 물을라고 했으면 진작 가부렀제. 망월동 이외에는 안돼. 절대로.]

진상규명 못지 않게 명예회복을 바라시는 아버님의 소원은 너무도 소박하고 당연함 이기에 연시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항상 지식들 만을 따르며 생활하신다는 아버님은 건강을 묻는 말에 [나는 괜찮아. 내자식을 위해 잠 못 이루고 싸우는 학생들이 고생하지.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가 내가 힘을 내야지.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이렇게 밤잠안자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들 만큼 고맙지. 근디. 부상은 안 당해야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어.] 하시며 우수에 젖은 모습으로 자리를 일어 나셨다.

<광주대책위 신문 [청년의 절규]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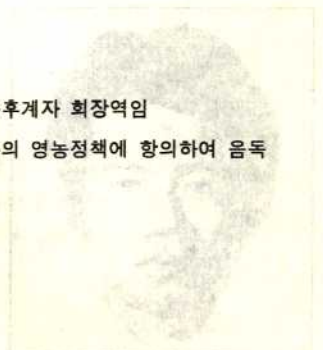
살아서 만나리라 재야편

오 한 섭 (당시 28세)

墓



1958년 충남 아산 출생
 1975년 천안 농고 축산과 졸업
 아산군 인주면 청년회장 영농후계자 회장역임
 1986년 3월 10일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부의 영농정책에 항의하여 음독
 1986년 3월 13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오한섭 동지는 81년 새마을 청소년 경진대회 낙농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축산기술이 뛰어났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던 중 81년 영농후계자 자금 200만원을 받아 한우 9마리를 구입하여 기르다가 83년 겨울, 한우 29마리로 늘려 길렀다. 그러나 당시 전경환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외국소와 쇠고기 수입을 하자, 소값이 폭락하였다. 밀리는 사료값을 갖기 위해 큰소 팔아 중소 넣고, 중소 팔아 송아지로, 나중에는 송아지 숫자를 줄여오다가 급기야는 85년 11월에 송아지 14마리를 팔아 밀린 사료값 500만원을 갚자 5마리의 송아지 밖에 남지 않았다. 오한섭 동지는 논밭 한푼도 없는 처지에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농협 빚 420만원도 갚아야 하고 많은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동지는 영농 후계자가 된 것을 후회하였다. 농민의 생산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정부의 영농정책에 분개하여 '용기! 패기! 사기! 빛! 빛! 420만원'이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86년 3월 10일 음독하여 3일만에 운명하였다. 그의 죽음은 살농정책으로 인한 농촌파탄에 대한 정부의 영농정책에 대한 항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영농 후계자 오한섭 형제의 죽음은
 전 영농후계자의 죽음!
 빚더미에 허덕이는 천만 농민의 죽음!
 농민형제여 모이자! 고 오한섭 형제 추모식에!
 농업회생 정책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오한섭 형제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 유고글

【유서】
 용기, 패기, 사기!
 빛! 빛! 빛! 420만원

김길호 (당시 34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 1954년 1월 18일 김주하씨와 강옥순씨의 2남으로 전남 무안에서 출생
- 목포중학교 졸업후 부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지만 실패
- 1972년 공군제대후 서울에서 장사를 했으나 실패
- 1977년 귀향
- 1979년 5월 우득례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둔
-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참여 이후 기독교 농민회원으로 활동
- 1986~87년 7월 4일 마늘, 양파, 생산비 보장 및 전량수매 촉구대회때 선봉에서 활약
- 1987년 3월 3일 부정선거 규탄 및 선거무효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오후 5시경 무안경찰에 잡혀 군화발, 자전거 체인 등으로 집단구타 당함(이로 인한 후 유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됨)
- 1987년 12월 24일 구류 5일을 살고 풀려나옴. 이후 통원치료
- 1988년 3월 15~25일 광주기독병원 입원
- 1988년 3월 25일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끝내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김길호 동지는 80년 광주항쟁 이후 기독교 농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특히 86년 7월 4일부터 87년까지 무안에서 지속된 '농산물(마늘, 양파) 제값받기 투쟁'에서 선봉대로서 열심히 투쟁에 참가하였다. 87년 12월 20일, 무안에서의 대통령선거 무효투쟁시 오후 5시경 무안읍에서 광주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이 눈두렁에 동지를

치박고 집단구타하였다. 이후 경찰에 연행되어 5일간의 구류를 살았고, 구타로 인한 후유증으로 무안읍 유성병원을 거쳐 목포 성 콜롬반 병원으로 옮겼으나 계속 악화되어 88년 3월 18일 광주 기독교병원에 입원. 결국 회생을 하지 못하고 3월 25일 "나는 할 일이 많은데..."라는 말을 끝으로 운명하였다.

김순복 (당시 29세)

墓



- 1965년 경남 통영출생
- 1984년 경상대 사회학과 입학
- 1991년 경상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 1993년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남도 연맹 간사
- 1994년 2월 1일 고 손구용 동지와 함께 서울 농민대회 참석 도중 함양군 형남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참사를 당하여 두 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운명

손구용 (당시 28세)

墓



- 1966년 경남 진양출생
- 1985년 경상대 행정학과 입학
- 1991년 경상대 사회과학대 부학생회장
- 1991년 진양군 농촌활동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 1993년 진양군 농민회 협동사업국 영업부장
- 1994년 2월 1일 새벽 고 김순복 동지와 함께 서울 농민대회 참석도중 함양군 형남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참사, 중태.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4년 2월 1일 "UR재협상, 국회비준거부,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참석을 위하여 진양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아침 6시 25분경 서울로 출발하였다. 전농의 지침에 따라 도 방송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다. 이 방송차량을 손구용, 김순복 동지가 맡기로 하고, 진양군 농민회 본대 버스 뒤를 따라 손구용 동지가 운전하는 1톤 트럭이 진주→김천 방면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신창군의 도로는 전날 내린 비와 눈으로 얼어 빙판길이었다. 두 동지가 탄

차량이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남효부락앞 S자형 커브지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언덕쪽으로 추락지점에서 느티나무(지름 약 30cm)와 충돌하여 김순복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즉사하였으며 손구용 동지는 두개골 파열로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다 저녁 8시 50분경에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땀땀하게 살고 땀땀하게 죽을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바보가 되더라도 거짓이 없으므로, 역사속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용기있게 죽는 분들을 나는 확인하였으므로 분명히 용기있게 땀땀하게 죽을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

(1986년 3월23일-김순복 동지의 수첩에서)

"이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나니 아홉마리 용의 비상을 꿈 꾸 내가 용의 해에 이루지 못했으니 기사년 뱀의 해는 기필코 이루리라"

(1989년 1월1일-손구용 동지의 제대수첩에서)

◎ 추모글

열사는 이렇게 청춘을 바쳤다네

지난 2월 1일, 600만 농민이 서울 대학로로 모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농민단체협의회 등 어느 지역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농민이라면 누구나 한 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이다. 우리 6백만 농민은 자식보다 소중한 여기는 농사일을 제쳐두고 오직 UR 재협상 쟁취, UR 국회비준 거부를 목표로 모인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아래, 진양군 농민회에서 서울 대학로를 향해 진주를 떠났고 도중에 함양 근처 국도에서 두 열사는 예기치 않은 참변을 당하였다.

UR을 반대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열사의 죽음은 우연한 것도 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다. 열사의 죽음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김영삼정권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강대국에 빌붙어 제 나라의 국민을 압살하는 정권을 놓고 어찌 문민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 군사독재 정권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UR을 문민정부의 간판을 달고 국민의 의사는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던 말인가?

생각컨대 김영삼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찌 두 열사뿐일 수 있으며 어찌 농민 뿐이라. 열사의 죽음은 숨을 쉬어도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6백만 농민

의 삶과 민족농업의 생명과 5천만 국민의 숨통을 죄는 비통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열사의 죽음에서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온 국민과 민족의 재생의 활로를 본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UR을 반드시 막아내고 흔들리는 민족 정기를 기필코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故 김순복 故 손구용 열사 장례위원회 자료집 中에서)

【성명서】

정부는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2일 정오의 라디오 뉴스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은 탁관용 비서실장과 최형우 내무장관을 불러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정부당국은 2월 1일의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3명을 구속하고 80여명 이상을 즉심에 넘길 방침이며 농민간부를 소환하여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에 따라 구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농민의 정서와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촌현장에서는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김순복, 손구용 농민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없다. 공부중의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순직이라고 하듯이, 수입개방저지의 농업사수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두 농민을 우리는 농민열사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그 죽음이 김영삼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어기고 UR협상과정에서 쌀과 기초농사품의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한데 반대하는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장례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가슴은 더욱 비탄과 분노로 가득한 것이다.

이러한 농민의 분노를 달래고 농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농민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가뜰이나 고양되어 있는 농민을 자극하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일부 농민의 절망감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는 사생결단의 지경에 이르러 있으며, 대다수의 농민정서가 일촉즉발의 위협수위에 다다라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농민의 분노를 배후조종이나 조작에 의한 것은 어이없는 억지소행일 뿐이다.

지금은 정부가 농민에 대한 어떠한 사법처리 방침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고, 농민의 절망과 좌절을 풀어줄 수 있도록 UR 재협상의 의지를 밝히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농민과 함께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 정부는 UR 재협상의 의지를 밝히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

- 정부는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경찰의 폭력행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경찰서장을 처벌하라!!

〈2·1농민대회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긴급 성명〉



1941년 7월 10일 충남 논산군 강경읍 동흥 출생
 1970년 11월 14일 최진숙씨와 결혼, 직업은 양복 재단사
 1989년 돈암, 동소문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부회장 역임
 1989년 2월 18일 술에 취한 가옥주 신광선이 휘두른 칼에 찔려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88년 4월 결성한 돈암, 동소문동 세대위는 1년동안 수차례의 강제철거와 조잡이 고용한 깡패들과의 계속되는 충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를 찾기위한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는 계획적인 내부분열공작을 벌여오면서 구속자를 유발시키고, 이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세대위가 이를 반대하며 완전한 삶의 자리를 주장하자 대대적인 강제철거를 감행해 오고 있었다. 정상울 동지가 사망한 2월만해도 2번의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있던 상태였다. 더구나 이 시기가 재개발조합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재개발조합의 의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더욱 악랄해진 상태였다. 그러던 1989년 2월 18일 돈암동 세입자 김성원씨 집에 가옥주 신광선이 술에 취한 채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란을 피우자 김성원씨의 부인이 공포에 질려 세입자 대책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고, 달려온 신광렬 동지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며 다가갔다. 그때 신광선은 우유각 속에 감추었던 식칼을 꺼내며 동지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급히 고대 해화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지는 운명하고 말았다.

또한 돈으로 협상을 부르짖는 일부 임원진의 기회주의적 모습과 그리고 그럴수록 강해지는 동소문, 돈암동 지역 주민을 파괴하기 위해 탄압의 미수를 뻗쳐오기 시작하는 성북경찰서의 음모가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정상울 동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1000여 세대의 생존권 쟁취와 임대주택 쟁취'를 위해 차라리 내가 구속되었다는 의지로 투쟁하였다. 1월에 청장년부 3명이 구속되고, 회장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등 계속되는 탄압과 긴장되는 순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특유의 사투리와 구성진 말로 동지들의 긴장을 풀어주곤 하였다. 또한 2월 2일과 15일 철거 때도 몸소 각목을 들고 22개 초소를 밤새워 돌면서 수고한다는 말과 열심히 투쟁하자고 격려하던 동지는 말보다는 행동을, 이기심보다는 희생정신과 헌신적 활동을, 사소한 차이와 대립보다는 단결과 협력을 몸소 실천하였다. 동지는 평소 유달리 유언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빈민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겠다는 비장한 결의에 다름아닌 것이었다.

정상울 동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세입자와 가옥주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독점건설재벌과 정부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오직 있는 자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강제철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진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돈암, 동소문동 세대위 주민들은 더욱 더 단결된 투쟁을 하여 최초로 가수용 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을 쟁취하였다. 이는 이 동지가 죽음으로 돈암동 투쟁을 사수한 것이기도 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산화해 가신 동지들에게 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바로 굽힘없는 투쟁일 것이다.

정상울 동지는 이 땅에 빈민해방 노동해방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동지들의 가슴에 영원히 핏물로 살아남을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여, 저희들은 당신의 영결식 후 백골단과 전경의 저지를 뚫고 달려 나갔습니다. 종로로 울지로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땀흘리며 어깨동무하며 동지의 뜻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며 승리의 그날 해방의 그날을 위해 오직 한길을, 투쟁을 환한 웃음으로 맑은 피로 열어 제끼며 힘차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머리며 절끈 묶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묘비에 새겨 넣은 "이 한 몸 죽어 빈민해방된다면" 빈민해방 민중해방의 약속을 머리며 써놓고 정수리를 꼭 죄며 머리며를 묶습니다. 그리고 빈민해방의 깃발을 꼭 쥐고 당신을 기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묘비에 새긴 약속'中에서〉

◎ 유고글

【동지의 말 1】

"죽여라! 내가 죽어서 철거가 없어진다면 빈민들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온다면 나를 죽여라!"

(89년 2월 5일 동소문 돈암동 강제철거시

동지의 생전 말)

【동지의 말 2】

"나는 무식한 놈이여, 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어. 우리 형제들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최후까지 싸울 것이여. 싸우다 죽으면 나도 도시빈민장으로 치뤄줘. 그리고 꼭 세시간만 돈암사거리에서 노제를 지내줘. 그 한스런 사거리에서 세시간만 허 허 허...."

그렇게만 해주면 빛이든 하고 갈테니....

(89년 1월 14일 황경호 어린이 도시빈민장에서)

이 재 식 (당시 37세)

✎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52년 5월 충북 중원군 산척면 석천리 출생
- 1978년 황규남씨와 결혼
- 1985년 '성흥사'에 입사, '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위원장 역임
- 1987년 9월 한국의장 취업
- 1988년 5월 노조결성추진과 조합활동에 대한 감시와 해고위협으로 현장노동자 생활정리
한겨레신문 거제지국 총무로 대우조선 노동자의 파업과 농성지원
- 1989년 6월 노점시작
- 1989년 10월 16일 전국적인 노점단속에 항의하여 분신
- 1989년 12월 11일 57일간의 투병 끝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이재식 동지는 고향 충북에서 삶터를 찾아 거제로 들어와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밝게 웃으며 가난을 표내지 않으며 인간관계도 원만했다. 신문사 지국에서 일하면서 한편으로 부인과 힘을 합쳐 호떡을 팔아 가난한 살림에 보태 보려고 나선 일을 읍사무소는 대책도 없이 단속, 철거만 했다. 더구나 몇십만원이나 밀천을 들어 몇푼 팔아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1989년 10월 16일 신현읍 개발과장을 반장으로 한 노점단속반이 거제군 농촌지도소 앞 호떡 손수레를 끌고갔다. 부인이 이에 항의하던 중 밀가루 반죽을 오토바이에 실고 온 남편 이재식 동지가 통사정을 해도 듣지 않고 읍장은 뒤늦게야 나타나 콧방귀만 뀌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12시40분경 울분을 못 참은 동지는 그만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불을 당겼다. 이를 본 직원들이 멍하니 보는 사이에 3도에 이르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거제 기독교병원, 마산 고려병원, 부산 대병원 등을 찾아갔으나 모두 진료를 포기하여 영도의 해동병원에서 생사를 해마다 12월12일 새벽 12시40분에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왜 몸에 불을 지르셨어요. 아버지가 신문

배달하며 살면 되잖아요. 엄마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심심해요. 매일 아버지랑 저녁 때 놀던 그때가 참 좋았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일깨워 주고, 산수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참고, 아버지도 엄마 앞에서 찾지도 않을게요. 아버지가 죽으니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지만 저는 참고 있어요. 어저께 와서 아버지께 절도 했어요. 그리고 슬도 한잔 울렸어요. 향도 피웠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독후감을 잘 써서 장려상을 탔어요. 엄마는 그 상장을 보시고 아주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저는 참 슬퍼요. 아버지는 참 좋았는데... 아빠 영안실에 있으니 참 줌죠. 아버지는 장례만 치루면 흩어지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89년 12월14일 딸 근혜 올림
(동지의 사후에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

◎ 유고글

【유서】

노태우 정권에 이 몸 불살라 경고한다!

법질서 확립과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구실로 아주 빈약한 생계수단인 거리 노점상과 생활의 터전을 짓밟았으며, 권권을 빙자한 철거반원들의 폭력에 수많은 부상과 처절함

이 안방 브라운관에 비취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 간 생명이 있었다. 나 또한 오늘 강제철거 당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몸 불사른다. 法이란 물처럼 가는 것이다. 이 형태가 법이다. 나의 동지들이여!! 이순간을 생각하라.

◎ 추모글

【성명서】

동지의 뜻 이어받아 생존권 쟁취의 한길로!!

- 故 이재식 빈민해방 동지의 죽음 앞에

400만 도시빈민은 분노한다! -

전국빈민연합은 400만 도시빈민들의 한마음을 모아 우리 이재식 형제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의 죽음에 통곡하기에 앞서, 무엇이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요구마저도 폭력과 구속으로 탄압하면서, 오직 독점재벌, 투기꾼의 이익만을 옹호해온 노태우 정권은 89년들어 대도시뿐 아니라 먼단위 노점상들까지 환경미화와 가로정비란 명목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공안정국이라는 초법적인 탄압국면을 조성하여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란 이

름으로 탄압해온 노태우정권은, 민생합수부란 해괴한 폭력 집단을 만들어 정작 필요한 폭력배나 인신매매단, 마약사범은 단속하지도 않고, 선량한 우리 형제들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어마어마한 세력을 동원하여 노점단속을 감행하고 강제철거를 자행해온 것이다. 그 결과 서울같은 대도시에 비한다면 한적한 시골에 불과한 거제도에서까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결국 우리의 선량한 형제가 온몸에 불을 붙여 노태우 정권에 경고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 노점형제만이 아니다. 1970년 전태일 동지가 노동해방의 참세상을 부르짖으며 온 몸을 불사른 이래 수많은 형제들이 노동자의 참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또한 자신의 삶을 파고하려는 음모에 맞서 온몸을 던져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400만 빈민들은 형제의 죽음에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기 보다 그 뜻을 이어받아 빈민생존권 쟁취의 대열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 노점단속은 더 많은 도시빈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갈 것이 분명하기에 즉각적인 단속중지와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요구한다. 아울러 엄동설한에도 우리 빈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강제철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인 영구임대주택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989. 12. 13. 전국빈민연합

이원기 (당시 23세)

墓 穴 장



1987년 성남 은행동 빈민협의회 결성
 성남 하대원동 철거반대 투쟁참여

1990년 5월 17일 당국의 무책임한 철거를 막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결

◎ 동지의 삶과 죽음

이원기 동지는 성남 은행 2동 13통에서 사글세방을 전전하다 가족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하여 오갈데없는 막연한 상황에서 1987년 3월경 결국은 은행 2동 1178번지 시유지에서 군용 텐트를 치고 전기도 없이 거주하는 중에 성남 시청 철거반들의 악랄한 철거만행이 시작되어 단신으로 맞서 철거반들의 온갖 협박과 철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였다.

이후 김철봉, 민선기, 강환철씨 등이 1178번지 일대에 움막을 치면서 철거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원기 동지를 비롯한 여섯 가구는 수십차례 철거 탄압을 받으면서도 가열찬 투쟁으로 철거를 저지하고 은행 2동을 중심으로 빈민협의회를 구성, 김광수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1989년 하대원 철거반대투쟁에 연대 참여하였다. 이원기 동지는 또한 주변의 여섯가구를 굳게 단결시켜 어려운 가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구자적으로 이웃의 불행에도 적극 참여,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안 정국에 휩쓸리고 철거반대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성남시는 철거시책을 변경, 집단 철거를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계고장을 발부하는 수법으로 1178번지 일대에도 강제 철거 계고장 및 자진 철거 계고장을 4월부터 5월 18일까지 발부하였다.

수차례 철거 위협을 받고 "이 지역이 철거를 당한다면 차라리 내 한목숨 버리겠다. 시장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괴로워 하던 이원기 동지는 자살에 앞

서 이웃 주민 민선기씨(여 48세) 앞으로 남긴 유서에 처와 자식을 부탁한다는 내용과 13통 통장 앞으로는 어려운 주민들인 만큼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남겼다.

또한 이원기 동지는 은행 2동 철거반장으로부터 5월 18일 철거반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나마 생계수단인 일용 잡부일 마저 나가지 못하고 그 동안의 철거반대싸움 때문에 집안에 식량 한톨 없는 상황이라 동네 쌀가게 주인에게 쌀1가마를 의상으로 줄 것을 부인을 통해 간곡히 사정하였으나 밀린 쌀값 5만원 때문에 쌀을 줄 수 없다는 말에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17일 아침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는 격려와 함께 아빠가 없더라도 굳세게 살라는 말을 남기고 귀여운 자녀들을 위해 손수 만들어 준 산속의 놀이터 그네 기둥에 전선으로 17일 오전 9시쯤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

이웃 주민 민선기씨가 발견할 당시에는 이미 절명 상태였고 119 구급차로 긴급히 양친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곧바로 영안실로 안치되었다. 이 사건을 놓고 성남 시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부부싸움 끝에 자살한 것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차후 생계보장, 무철거를 내세워 유가족을 회유, 화장할 것을 권유하여 이원기 동지 처남으로부터 화장 위임을 받아 5월 19일 성남화장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마쳤다.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성남시 은행2동 사무실의 비인도적 처사에 분노하면서 철거 반대 결사투쟁을 결의하고

이원기 동지의 뒤를 이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장은 취임사에서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한 뼘도 놓치지 않고 되찾겠다는 망언을 하고 철거민들의 선대책 후철거 요구에 여태까지 시유지에서 세금도 안내고

살게 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지 무슨 보상이나 하는 등의 도대체가 시민들의 애환을 생각지도 않는 관료주의적 행태만 일삼고 있다.



김선호 (당시 31세)

慕 부산 팔송 시립공원 묘지



- 1961년 7월 전남 여천 출생
- 1985년 부인 이정례씨와 결혼
- 1991년 12월 부산시 장림1동 철거대책위 교육부장 역임
- 1992년 10월 총무 역임
- 1992년 11월 "끝까지 투쟁하여 주거권을 쟁취하자"라고 외치며 철거에 맞서 싸우다 철거장패의 집단구타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92년 10월26일 오후 1시경 부산시 사하구 장림지역은 처음으로 강제철거를 맞게 되었다. 100여명의 철거반원과 중장비를 동원한 그들은 무력으로 몰아붙였으나 이를 저지하던 주민들과 김선호 동지는 LPG가스 배출로 위협하였고, 부상당한 부녀자의 몸부림으로 강제철거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집을 지켜냈다는 기쁨도 잠시, 11월3일 오전 대대적인 강제철거가 다시 감행되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철거장패를 돕는 상황이었으며 주민들이 함부로 다루어지고 이리저리 끌리며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선호 동지는 참다못해 그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선호 동지는 운명하게 된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김선호동지가 철거장패의 집단구타로 운명한 후에도 철거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고 많은 철거민들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당국의 발표로는 심장마비사라고 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발표였다. 계속되는 연행, 철거, 시신탈취 등 갖은 탄압을 가하였지만 주민, 학생과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투쟁은 계속되었다. 주민들에게는 발전과 성과는 크게 없었지만 언제나 동지를 애도하는 마음만은 변할 수가 없기에 동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지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수 없는 승리의 그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반드시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은 살아있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열심히 살 것이다.

◎ 추모글

【성명서】

92년 11월3일 사하구 장림1동에서 강제철거 도중 발생한 김선호 열사의 폭력살인에 대한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철거장패 이외에 전경, 경찰간부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심장마비라는 사인 결과는 지역주민이나 모든 이들에게 이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11월5일 오전 공권력을 동원한 시신 강제탈취는 자신들의 폭력살인을 인정하는 것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고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유가족과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최선책일 것이다. 또한 지금도 장림1동 지역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아랑곳 하지않고 안전시설도 허술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시위성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 수차 제기해도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주)호승은 허위 사건을 조작, 주민을 구속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색측과 경찰의 유착은 이미 언론(92년 3월 31일 국제, 부산일보)에 서도 제기된 바 주민을 위한 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장림을 비롯한 많은 철거지역에서는 주민에 대한 대책수립보다는 강제철거로 지역 주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법보단 주먹'이라는 말을 정부는 몸소 실천하고 있다.

8월30일 아침부터 장림에 또다시 철거를 강행하여 아무런 대책없는 이주를 강요하고, 9월10일 해운대 신시가 지 조성지역에 거주하는 10여가구 주민들을 전경, 철거반원 등 수백여명이 동원되어 철거를 강행한 것은 과연 문민정부에 어울리는 것인가? 이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져야하며 지금의 주택정책도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채산성을 앞세우는 건설기업에 의해 지어지는 주택은 서민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소이기에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 공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주택이 재산 증식수단이나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생활의 공간으로,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철거민들에 대해 정부도 성의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 김선호 동지 1주기 추모자료집 中에서)

【시】

빈민해방의 불꽃으로 부활하라 故 김선호 동지여!
-故 김선호 동지의 영전에 부쳐-

누가 당신을 데려 갔습니까
누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 갔습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손이 되어
이땅을 버려두고 우리 곁을 떠난 故 김선호 동지여!

살기 위해 지킨 땅인데
오갈데 없어 버틴 땅인데
민중생존 요구하며 전던 땅인데
가진 것 없어 여지껏 맨 몸으로 싸워 일군 땅인데

아! 동지여!
고 김선호 동지여!
어느놈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당신이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식, 지역주민 이들을 두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그날 11월 3일

24가구가 모여 살던 장림동에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놀란 장림지역 주민들은 잠이 깨기도 전에 손에 손마다
닥치는 대로 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입구까지 들어온 포크레인과 경찰, 철거장패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목숨건 생존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수한 폭력과 함께 한 채 한 채 철거를 당했습니다.
동지는 자기 한 몸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경찰들에 둘러 당바닥으로 던져지고

주민들이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노로 가득찬 동지의 저항의지는 둘러싼
철거장패들에 의해
이미 내리 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먹과 구두발로 사정없이
동지의 몸과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동지는 소리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 동지여!
지금도 사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전에 힘차게 외치던 민중생존권
쟁취하자라는 말한마디 못하고
주민들을 향해 달려달라 도와달라며 신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구타현장에 즉사하신 동지여!
절명 후 살인자들의 손에 끌려
차디 찬 고신대 영안실 콘크리트 바닥에 동맹이
쳐진 동지여!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금수였습니다.

김 선호 동지여!
동지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예고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철거민은 가진자들을 위해 얼마나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철거민의 주검을 보아야만 합니까?

동지여!
이제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젊은 아내 어린 자식 이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남은 장림주민들은 어떻게 이땅을 지켜가야 합니까?
원망스런 동지여! 한 많은 동지여!
그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빈민해방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를 부활입니다.
그대의 소원, 그대가 살아 생전 이루지 못했던
빈민해방에 대한 염원
남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 가진자 처단하고 빈민해방
쟁취하겠습니다.
지하에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 김선호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고인의 영전에 빈민해방의 염원 모아
삼가명복을 빕니다.>

최정환 (당시 36세)

墓 용인 카톨릭 묘지



| | |
|---------------------|-------------------------------|
| 1959년 | 출생 |
| 1994년 6월 | 방배역 부근에서 테이프 노점상 시작 |
| 1994년 6월 | 노점단속으로 전치 8주 부상 |
| 1995년 3월 8일 9시 45분경 | 서초구청의 살인적인 노점상 단속에 분신으로 항거 |
| 1995년 3월 21일 | 새벽 1시 50분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적수장애와 교통사고 중도장애인인 최정환 동지는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이자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가판을 달고 테이프 노점상을 시작하여 삶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초구청에서의 노점상 탄압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한 가운데 95년 3월8일 오후 8시30분경 서초구청의 살인적인 단속에 장사하는 스피커와 밧데리통을 빼앗겨 당일 오후 9시30분경 서초구청을 방문 담당자를 면담 후 압수된 물품을 찾으려 했으나 심한 모멸감만 받고 좌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최정환 동지는 결국 9시45분경에 분신하고 3월21일에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동지의 죽음은 살기 위한, 더욱 강렬한 빛으로 살려 했던 의지인 것입니다. 지금 동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타버려 오그라든 전신의 몸 속에서 나온 복수를 해달라던 외침! 복수는 이미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닌 정권의 열악한 사회복지와 빈민의 대책없는 생존권 탄압 등 제반 민중을 억누르는 모든 악을 향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동지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거두립니다. 더 이상 슬픔은 눈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동지는 400만 장애인과 빈민 등 이 땅의 소외받는 민중의 삶을 위해 운동적 삶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

다. 운동적 삶은 그 속에서 빛어지는 민중의 진보된 삶을 위해 마침내 모든 민중이 차별과 편견 그리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되는 해방된 세상을 위해 부여한 것입니다.

최정환 동지의 죽음의 실체는 밝혀졌습니다. 삶의 의지조차 짓밟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실체는 장애인을 억압하고 빈민을 탄압하는 권력의 민중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폭력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바로 악의 일소는 최정환 동지 죽음의 복수를 해야 하는 남아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동지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염원을 저 세상에서는 편히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추모글

【성명서】

지난 3월8일 오후 9시 서초구청의 노점행상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생계수단마저 빼앗긴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의 분신을 접하면서, 우리는 지금 또 다시 더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를 느낀다.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문명정부에서조차 장애인의 생존은 여전히 짓밟힐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번 사태는 400만 장애인을 포함한 이 땅 기층민중 모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탈은 무수히 자행되어

왔다. 최소한의 생존수단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기관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가해와 폭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모든 곳에서 내몰린 이 땅의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강탈한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정환씨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강탈하려고 한 정부에 분신으로 항변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이면 무조건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고 폭행하고, 부수는 현 정부가 고용한 단속반에 대해 아무 힘도 없는 이 땅의 장애인, 이 땅의 노점상을 대변해 몸을 불사른 것이다.

철저히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고, 마지막 살고자 하는 발버둥마저 외면당해 버린 최정환씨의 삶이 곧 우리 장애인중의 삶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장애인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그 노점에서마저 쫓겨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현 정부의 허구적인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장애인중의 몫은 차디찬 눈총과 무자비한 방망이 그리고 죽음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정환씨의 분신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전체, 기층민중 전체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분신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응징하고,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에 맞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폭행단속반 해체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1995. 3. 10.

이 덕 인 (당시 28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67년 12월 전남 신안군 출생
1995년 6월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1995년 11월 25일 노점 철거에 반대 농성중 실종
1995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철거 감시용 망루에서 농성중에 있던 이석근씨에 의해 발견

◎ 사건경위

4급 장애인이라는 힘겨운 신체 조건하에서도 노점 생활로 기반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싶게 살아가던 이덕인동지는 현정권과 인천시 당국의 대책없는 노점철거에 항거하여 투쟁하다 급기야 그들에게 살해되었다.

이덕인동지는 인천시가 휴식공간 목적으로 군사보호 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95년 7월 3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장애인 22명, 빈민 20명과 함께 노점을 시작했다.

1995년 11월 24일 오전 7시 경찰과 철거용역회사 직원 등 1,500여명이 아암도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난입하였다. 이덕인 동지를 포함한 30여명의 노점상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강제철거를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 10월경에 건설해 둔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을 쏟아 붓고 돌맹이를 집어 던지면서 농성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점상인들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음식물의 반입이 차단되어 있었다. 물에 젖은 옷속으로 살인적인 추위가 밀어 닥쳤지만 대책없는 노점상 해산시도에 대해 하염없는 농성이 계속되었다.

농성 둘째날인 11월 25일 저녁 이덕인 동지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외부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준비하고 있던 사법시험의 자격상실이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고립되고 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소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덕인동지는 이석근과 함께 행동하기로 하고 이 날 저녁 8시 45분경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덕인 동지가 먼저 망루를 내려갔다. 그러나 뒤따라 나오기로 했던 이석근은 경찰이 자신들을 발견하고 망루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여 이덕인 동지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후 다시 망루위로 올라갔다. 이것이 이덕인 동지의 마지막 생전모습이었다.

망루를 떠난 지 3일 뒤 11월 28일 오전 10시경 이덕인 동지는 농성장 근처의 아암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덕인 동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농성하던 노점상인들이었다. 그때까지 극도의 허기 그리고 추위와 싸우면서 근근이 버티던 농성자들은 망루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닷가에서 한 시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농성자들은 즉시 이 사실을 망루 주변의 경찰에게 알리고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다음날인 25일 망루를 빠져 나갔던 이덕인 동지였다.

발견 당시의 이덕인 동지는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물속에 얹어져 있었으며 사체의 뒷모습을 보니 팔이 줄로 묶여 있었으며, 시신을 뒤집어 똑바로 눕히자 두 손목도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또한 시신의 얼굴과 뒷머리, 양쪽 어깨, 팔 등에는 상처와 피멍이 수두룩하였으며, 동지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시신의 손목에 포박된 줄은 노점상들이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 10밀리미터 두께의 줄이며 주변에 많이 널려 있던 것이었다.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황급히 망루를 무력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농성자들은 이덕인 동지의 죽음으로 더욱 전의를 상실하고 농성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성자 전원은 인천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

한편 시신은 11월 28일 오전 11시 50분 유가족들에 의해 세광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날 남인천의원 원장 박용섭이 검안하였는데, 그는 "얼굴과 팔, 상체 등에 상처와 피멍든 자국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자신의 소견을 말하였다. 이 날 오후 6시 30분 유가족들은 보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시신을 세광병원에서 중앙길병원으로 옮겼다.

그 다음날(11월 29일) 새벽 4시 30분경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책임자가 방문하였다. 이 때 유가족측은 시신탈취를 막고 공정한 부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찰측과의 합동부검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4시 45분경 쇠파이프와 곤봉, 오합마 등으로 무장한 경찰 약 천오백여명이 벽과 유리창을 뚫고 병원영안실로 난입하였다. 당시 영안실에는 이덕인의 시신발견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과 학생, 시민단체회원 등 100여명이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영장도 없이 시신을 탈취하려는 경찰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사람들 간의 치열한 충돌도 잠시 시신은 곧 경찰에 의해 탈취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날 시신을 지키던 이덕인의 형 이덕창은 시신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강제로 납치당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많은 부상을 입은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시간만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부검되었으며 재부검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훼손된 채로 가족에게 반환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덕인 동지의 사인은 익사라고 발표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부검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덕인 동지는 탈출하기 위해 연안부두쪽으로 수영하던 중 탈진상태에서 익사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의문점

이덕인동지의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증거로는...

① 사체발견 당시 밧줄이 다소 풀어지기는 했으나 두손이 포박된 상태로 묶여져 있었던 점.

② 최초 발견시 사체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눈위의 열상(찢겨진 상처) 및 얼굴 부위와 어깨등의 좌상(피멍든 상처)이 존재했던 점.

③ 이덕인 동지가 옷을 입은 상태(이석근씨의 진술에 의하면 야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함)로 탈출하였는데도 사체발견시에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사실 등이 있다.

이덕인 동지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민중과 빈민들,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이 어찌되건 자신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하며 그들의 생계마저 포크레인으로 가차없이 짓밟는 김영삼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당국이 노점상들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더구나 망루로 피신한 노점상들에게 물과 음식을 차단시키고 급기야 탈진한 노점상들을 향하여 추운 겨울의 강한 바닷바람에 얼어 죽도록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켜 결국은 이덕인동지를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것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인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시】

이덕인 열사여 우리는 그대를 빈민해방 열사라 부른다.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한 이들이 있듯이
민국의 빈민들이여 이제는 단결하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이덕인 열사의 죽음으로
이땅에는 다시는 빈민들의 죽음이 없게하고
이땅에는 다시는 노점상들의 죽음을 없도록 하고
이땅에는 빈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진실로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이덕인 열사의 영정 앞에 빌고 또 빌어 봅니다.

열사가 태어나는 곳은 억압과 탄압이 없는 세상

노점상들이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조국을 사랑하고 남과 북이 하나되는 세상
나라가 통일이 되어 휴전선이 없는 나라
그런 세상에 살기를 간절히 발원하오니
진달래 꽃이 온 산천을 뒤 덮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분명 갈 것입니다.

빈민이 주인되는 나라
천년만년 자유를 누리는 나라
이덕인 열사가 외치는 나라
빈민이 없고
누구나 평등히 사는 나라
홍길동이가 원하던 나라
임격정이가 건설하려던 나라
장길산이가 원하던 나라
그런 나라에 태어나소서
만일에 그런 나라가 아니면
농민해방을 외친 녹두장군이 되소서

이덕인 열사여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면
조국이 하나되는 나라가 되면
빈민이 없고 노점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열사여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못다한 한을 푸소서

(당시의 장례위원회 자료집 중에서)

◎ 추모글

【유인물】

시민 여러분 핏빛 아암도를 아십니까?

-인천의 아름다운 작은섬 아암도!-

그 섬을 둘러싸고 정권으로 부터 자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무창직원과 백골단 그리고 연수구청 직원이 동원이 되어 무차별하게 아암도 포장마차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속에서 장애인과 노점상 그리고 부녀자들이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면서 10여미터의 망루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

다. 한겨울에 그것도 살을 에는 칼바람속에서 미친 듯이 물대포를 쏘아대며 살인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망루를 내려왔던 고 이덕인 열사는 실종된 지 사흘만에 시체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발견 당시의 열사는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물속에 얼어져 있었으며 시신의 뒷모습은 줄로 포박을 당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경찰은 지난해 11월29일 새벽에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구월동 길병원에 경찰병력 1천여명을 영안실에 투입하여 시신을 탈취한 뒤 서둘러 강제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사의 사인을 익사라고 발표하고 재부검이 실시될 수 없도록 시신을 도려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총11명의 노점상과 학생들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민여러분!

또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아암도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예산 2억2천만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공개입찰로 1억9천9백만원에 철거전문회사인 (주)무창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척박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보겠하던 장애인 노점상들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자행하기 위해 인천시민의 혈세를 건넌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실종되었던 이덕인 열사는 그렇게 두손이 묶인 채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150여일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는 영안실에서 한겨울을 버티내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과 언론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올해는 봄이 어느해보다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은 우리 이 사회에서는 불과 몇 달도 안되는 사이에 수많은 노동자, 빈민, 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직후에도 열사들의 행렬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니 역바로세우기를 떠들어 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층민중들은 아직도 이렇게 암울하기만 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는 열사를 보내고자 합니

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대로 이덕인 열사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 될 때까지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빈민해방열사 故 이덕인 동지

전국장애인민장 장례위원회

신연숙

墓



1994년 12월 4일 수원2지구 세입자 대책위 결성

1996년 6월 18일 철거반대 고공농성을 위한 골리앗 설치

1996년 9월 5일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철거에 맞서 사수투쟁 승리

1996년 2월 5일 한국토지공사 철거장패와 공권력 동원하여 골리앗에 방화자행. 이 과정에서 불을 피하기 위해 신연숙 동지가 18미터 높이의 골리앗에서 투신하였으나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신연숙 동지의 죽음은 한국토지공사의 반민중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익을 위한다는 한국토지공사는 공익과는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자금줄과 투기꾼들의 앞잡이 노릇을 도맡아 오며, 한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챙기는 허가받은 땅 투기꾼인 것이다. 그들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대상지역에 거주하던 원거주 주민들이 사업완료 후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그들의 허구적 논리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시서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철저한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정자들과 그 떡고물로 기생하고 있는 공권력, 철거민들에게 살인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돈을 벌며 먹고사는 철거용역장패, 이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권과 한국토지공사의 반민중적 정책으로 인해 단 한 평의 삶의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한 수원 2지구 철거민들은 1994년 12월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95년 골리앗을 설치하여 8월부터 150여일간 고공농성을 전개해왔으며, 9월달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철거에 맞서 전국철거민연합회 동지들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수

지2지구 철거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포기할리 없었다.

96년 2월 5일 백골단 200여명과 철거장패 100여명이 골리앗에 기습적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골리앗 위에는 주민 4명과 학생 1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철거장패들과 백골단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골리앗에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골리앗에 불이 붙었다. 백골단과 철거장패들은 18M 높이의 철탑이 화염에 휩싸인 채 5층 꼭대기 위에서 살려달라는 동지들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끄기는 커녕 포크레인과 쇠파이프, 오함마 등으로 철거민들의 보금자리를 씩씩이 철거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연숙 동지의 투신은 두고 온 아이들을 위한 생존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결국 신연숙 동지가 방화에 의해 숨지고 권미향 동지와 명지대학생 1명이 중태를 입게 되었으며 신연숙 동지의 남편 권정택 동지는 허리골절 척추이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연숙 동지와 수원2지구 철거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단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순환식 개발에 근거하여, 가 이주단지 조성과 철거민들의 경제적 실정에 맞는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철거민들의 대다수 삶이 그렇듯이 신연숙 동지도 세 아이와 남편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다. 그러한 신연숙 동지에게

들어온 것은 죽음뿐이었던 것이다.

신연숙 동지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서민들 누구에게라도 닥칠지 모르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 추모글

【성명서】

김영삼 정권은 신연숙씨의 죽음에 책임을 저야 합니다.

김영삼은 신년사에서 '삶의 질 향상' 운운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의 한편에서는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동지가 은몸이 피멍이든 채 밧줄에 공공 묶여 인천 아암도 갯벌에 버려졌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 동지는 김영삼 정권이 약속한 해고자 복지가 지켜지지 않고 병역특례라는 이유로 수배생활을 하던 끝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뿐입니까? 한국전력 김시자 동지는 김영삼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임금억제정책과 노조 무력화정책 때문에 산화해 가셨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개혁을 한다는 이름아래 민중들에 대해서는 악랄한 탄압으로 일관하여 또다시 철거민 신연숙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물가인상의 주범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며 독점재벌에 대한 부동산특혜는 또한번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갔습니다.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정책은 수도권일대를 중심으로 X나 H자 방식으로 국토에 대한 개발을 전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건설자본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개발지구내 철거민들에게 내놓은 것은 비현실적인 이주대책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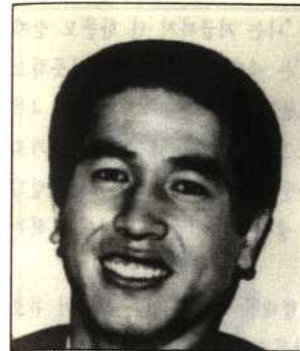
이주능력이 없는 철거민들에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철거는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돈없는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연숙 동지의 죽음이 오늘에 우리 서민들의 죽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연숙동지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이 현재와 같은 탄압을 계속하는 한 우리들 누구에게라도 닥칠지 모르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 시민이 뚝뚝 뭉쳐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김영삼정권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철거민 고 신연숙 동지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

민 병 일 (당시 39세)



1958년 12월2일 경기도 파주 출생

1989년-1994년 삼성재단 산하 중앙개발연구소에서 근무 (노조발기인으로 활동)

1995년 9월28일 구갈 철거민 대책위원회 임회

1996년 4월6일 구갈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

1997년 2월 15일 노점단속으로 빼앗긴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했다가 경찰관들의 집단폭행으로 두개골이 으깨어진 뇌사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 끝내

운명

◎ 사건경위

1997년 2월2일 닭고치 등을 노상에서 팔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던 민병일 동지는 경기 용인시 노재신갈 파출소에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파출소의 경찰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8cm가량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곤봉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 민병일 동지는 심각한 외출혈로 인해 자꾸 부어오르는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위해 두 개골을 열어 놓은 처참한 상태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게하여 생명을 유지하던중 끝내 운명하였다. 경찰측에서는 의경이 민병일 동지를 밀어서 다쳤다고 발표하였으나 정황이나 의사판단으로 보아서는 곤봉에 맞아 머리가 8cm함몰되었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

◎ 동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번 "철거민 민병일 동지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테러 사건"을 단순히 몇몇 경찰관들의 실수 짚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있는 도시민(철거민, 노점상 등)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자본가정권의 민중생존 압살정책, 즉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악을 통해 노동통제의 노동자 생존 말살로 자본가 살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영삼정권은 한비리와 같은 대형 재벌비리를 은폐축소하고 있으며 더 이상이 사회를 관리,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가정권인 김영삼정권은 전민중의 힘으로 타도하는 것이

당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실제 총과업투쟁 이후 단위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조말살정책, 무노동 무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탄압이 본격화되어 왔습니다. 경기 남부지역만 하더라도 기아모택, 한일전장, 한국후고구, 덕부진흥, 안양중앙병원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말살정책과 부당해고가 만연해 왔습니다. 또한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은 더욱 기세를 강화하여 황장엽 사건과 이한영 피살사건으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대사건 이후 한총련 집회는 거의 불허가 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불법연행과 구속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민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민중탄압을 각계각파가 아닌 최소한 지역차원에서든 집단적 대응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자본가정권의 탄압을 분쇄해 나갑시다.

◎ 추모글

【성명서】

어제 전국의 철거민들은 또하나의 커다란 죄를 범하고 말았다.

작년 2월 5일 철거민 신연숙 동지를 우리의 곁에서 떠나 보내면서 가졌던 피맺힌 절규의 각오와 맹세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곁의 동지를 적들에게 희생시키지 말자!"고 그토록 다짐 하였건만 끝내 또 한

명의 동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만 것이다.

지금, 민병일 동지는, 아주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이 으깨어진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맥박만 유지하고 있을뿐 "뇌사상태로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사의 진단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누워있다.

신연숙 동지가 용인경찰서와 철거깡패들이 방화에 의해 산화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동지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제를 엄숙하게 준비하던 중, 또 한사람의 철거민 동지가 또다시 용인경찰서의 잔악한 놈들에게 몰매를 맞고 머리가 터져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의 명분속에서 진행되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살던 민병일 동지는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야 한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주택철거로 인해 어려워져가는 생계를 유지하기위하여 노점에서의 닭고치장사를 하여 왔었다. 그러던 며칠전 관할 관청도 아닌 신갈파출소의 노점단속으로 민병일 동지는 장사도구를 빼앗겼고 어제 그 장사도구를 되찾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 갔다가 파출소 직원들로 부터 그러한 봉변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교사행위"이다.

집권과 더불어 지금까지 4년동안 내내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기만극을 연출하더니 민생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통치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정적들 제거를 위한 모사나 궁리하고 있다. 이번 노동법이나 안기부법의 날치기 개악에서도 보여주듯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오만과 독선은 안하무인, 앞 뒤 계획도 없는 정책남발과 지도의 철학이 없는 무지한 국정운영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부패한 권력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권력이나 공권력의 통제불능의 직권남용을 낳아 생존권을 부르짖는 무고한 서민을 몽둥이로 머리통을 깨부수는 테러행

위를 서슴없이 자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살인교사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선자금에 1조2천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세 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판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거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밤먹듯하고 있는 대통령을 쳐다보고, 1천2백만 노동자가 거부하고 4천만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개악하고서 국가의 장래 운운하는 통치자를 쳐다보는 밀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것이란 기대를 하는 자체가 꿈일게다.

친제벌과 친자본적 형태를 일삼고 있는 정권이 한보에 5조원을 끌어다 주는 현실속에서 어느 도시서민이 개죽음을 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 또한 꿈일게다.

안기부법의 개악을 통해 온 나라 사람의 입을 봉하고 족쇄를 채우려는 서슬퍼런 공안의 분위기 속에서 재물만난 물고기들처럼 좋아 날뛰는 공안의 개들 중 일개 파출소의 직원이 주민을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사경을 헤메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 전국의 철거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몇몇 경찰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무마시키려 하거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해 나아갈 것이며 이번 사건의 명백한 책임자인 김영삼정권의 타도를 위한 정권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이 땅의 민중들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를 철저히 쟁취해 낼 것이다.

그러하여 한줌도 안되는 수구세력들에 의해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들을 타파해 내고 주인이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장엄하고 엄숙한 길에 철거민이 한발 걷고 내딛는 것이다.

박 순 덕 (당시 34세)



- 1963년 2월 전북 정읍 출생
- 1985년 6월 김창수와 결혼, 슬하에 남매
- 1995년 2월 전농3동철거민 대책위 가입
- 1997년 7월25일 철거반대 철탑망루 농성중 철거깡패들이 페타이어 등으로 방화를 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자 질식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불길에 휩싸여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7년 7월 25일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전농3동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 반대와 가수용 입주'를 요구하며 철제망루에서 한 달째 농성중이던 10명의 철거민이 방화에 의해 철탑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18M 높이에서 뛰어내려 박순덕 동지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온몸이 골절되고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하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재개발회사인 선경건설과 재개발조합은 용역회사인 적준토건 소속 철거깡패 300여명을 동원하여 전투경찰 600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강제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깡패들은 오후가 지나면서 철탑망루 주위에 옷가지와 페타이어를 태워 유독성 연기를 뿜어내 두더지잡기라도 하듯 농성중인 철거민들의 질식을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철거깡패들은 살금살금 철탑망루에 다가가서 철거반의 화염병 투척 등에 의한 화재를 막기위해 철거민들이 1층에 설치해 놓은 방벽을 커터기로 뜯어내고서 옷가지와 페타이어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철제망루 밑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철탑망루를 뒤덮었다.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니?

그런데 적반장도 유분수지 집단 방화범들은 이번 방화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발생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불을 질렀다니 어디 이게 말이냐 되는 소리인가? 당시 철제망루에 있었던 부상자들과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은 점차 방화살인의

전모를 밝혀주고 있다. '페타이어를 밀어넣고 불을 지르자 매캐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올라 왔습니다. 1층에는 취사용 LPG통도 있고 위험해서 내려가 소화기로 불을 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갑자기 불기둥이 철탑망루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당시 철거깡패들은 신나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프라스틱 우유통을 들고 다녔고 소주병을 들고 다니며 마셨습니다. 불이 꺼지자 페타이어에 신나를 끼얹은 것이 분명합니다' 1층 방벽을 뜯어 페타이어를 밀어넣어 불을 지르고 불이 꺼지자 신나까지 끼얹은 일련의 진행과정은 이번 방화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축소와 은폐조작의 총대를 맺는가?

그러면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철탑망루를 향해 3번이나 최루탄을 난사하며 강제철거에 가세하였다. 놀라운 것은 철탑망루 농성자들에 의하면 1층 철제방벽을 뜯을 때도 한차례 경찰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인가?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방화살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조작까지 기도하고 있다. 박순덕 열사가 안치되어 있는 경희대병원과 전농동 방화살인 현장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고 피해자인 부상철거민들을 되려 방화범으로 몰며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났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농동 철거민들의 끈질긴 투쟁

전농3동은 94년 재개발 고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95년초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며 세입자들이 전농3동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어 그해 9월 대대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철거장패 500여명에게 포위된 가운데 하루 온종일 사투를 벌인 끝에 지역을 사수하였다. 이후 철담망루를 건립해 강력한 철거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1995년 5월 그해 9월까지 입주할 가수용 52세대를 쟁취하였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시설을 쟁취함으로써 임대주택입주를 보장받게 되는 1차 승리였다. 그런데 선경건설과 재개발조합은 법적으로 공중가시 기한 1996년 9월의 가수용 입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97년 6월 동대문구청에 의해 8세대에게만 강제철거 예고장이 발부되었다. 이와같은 불법부당한 강제철거에 맞서 8세대는 6월 23일부터 철담망루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하였고. 6월 24일 공권력에 의해 지역이 원천봉쇄되고 주민 8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이후 단전 단수 조치로 빗물을 받아먹으면서 농성을 진행하던 중 이번 방화 살인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민중주거권 압살하는 김영삼 정권 퇴진해야 임기 말에 접어든 김영삼 정권은 우리 민중들에게 군사정권 보다 더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더 악랄하게 탄압한 정권이었다. 강제철거와 단속에 맞서 싸우다 잇따라 산화한 노점상 이덕인, 양승진 철거민 신연숙, 민병일, 박순덕 동지가 말해 주듯 빈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안겨주었다.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부터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대책으로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제도화되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이 사라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후퇴하였다. 이번 전농동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벌 건설회사가 공중도 무시하고 가수용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7월 29일 청량1동에서는 9월 1일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수용단지들 철거장패들이 주민을 감금한 가운데 기습, 불법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개발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재벌 건설회사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96년 이후만 하더라도 용인수지, 서울 산천동, 신길 2-3 개발지구, 도원동, 수원 원천 등에서 방화, 테러, 감금, 성폭력 등 살인 폭력이 난무하였으며 행정관청과 경찰서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대책위 유인물 중에서>

채 광 석 (당시 39세)

墓 팔당 공원 묘지



- 1948년 7월 11일 충남 서산군 안면면 출생
- 196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
- 1975년 5월 김상진 동지 추모시위로 구속
- 1983년 본격적인 문학평론 활동 시작
- 1984년 3월 14일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 실행위원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국장
- 1985년 시집 『밤줄을 타며』, 사회문화론집 『물길처럼
바람처럼』 발간.
- 1987년 7월 12일 폭주하는 택시에 받혀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3년부터 동지는 본격적인 문학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84년 3월 14일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과 동시에 실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실험에서 의원 면직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재건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타계할 때까지 문화운동 전반에 걸쳐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운명일인 1987년 7월 12일 '민주시민대동제'가 끝난 후 '민운연' 노래패 사무실에서 가진 술자리 후 귀가길에 택시에 받혀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1975년 4월, 서울대 김상진 동지가 [박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낭독하고 할복자살하는 등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자, 박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여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5월에 김상진 동지 추모시위가 힘차게 벌어지자 사범대 시위책임을 맡았던 동지는 체포, 구속된다. 문단의 후배 김도연, 김정환도 이때의 동료들이고, 수감 당시 나중에 아내가 되는 강정숙씨에게 쓴 편지는 후에 옥중서한문집 [그 어딘가의 구비에서 우리가 만났듯이]에 수록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40여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이때의 고문체험을 <애국가> <검은 장갑> 등의 시에 쓰고 있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문학운동을 비롯한 문화운동 전반에 걸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문화예술분과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박노해 시인을 발굴하여 민중문학의 한 맥을 이루게 하기도 하였다. 1987년 '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민주시민대동제'에 참여하였다가 이 행사에 출연했던 민운연 노래패와 뒤풀이를 끝내고 귀가길에 폭주하는 택시에 받혀 모든 이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의 나이 만 39세로 세상을 떠났다.

◎ 추모글

동료의 글

채광석 형이 비명에 세상을 뜬지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그가 우리 문학과 운동에 끼친 기여를 생각하면 그를 기리고 새기는 일은 아무리 자주 되풀이 되어도 지나칠 일이 없건만 그동안 우리는 그를 너무나 돌아보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단지 죽은이를 돌이켜 되새기기에 산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빴다는 상투적 알리바이로는 변명이 되기 힘든 일종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돌아보는 일은 사실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그를 좀더 자주 돌아보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훨씬 더 단결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까이 가면 데일 것 같은 뜨거움과 멀리 가도 늘 느껴지는 따뜻함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찌보면 가장 모

자란 '열정과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민중민족문학운동이 유례없는 고착상태에 빠져들어 암중모색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 탓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고인의 반정도 만큼의 열정과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상황을 핑계로 움츠러드는 것을 옳다고 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시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때 말 그대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한 가장 부족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 돌아보기가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채광석' - 제 5주기 추모의 밤 중에서〉

【시】

당신의 이름은

-故 채광석 5주기에-

당신의 이름은,
민중입니다.

당신의 다른 이름은,
민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은,
통일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그대 붉은 피로 넘어뜨리고
전두환 군부파쇼를 향하여 온몸으로 돌진하고
주먹질을 하고

민중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감옥을 넘나들이 하던
당신의 늠름한 모습을, 당당한 그 몸짓을
80년대 내내 우린 보았습니다.

어설플 민족문학의 길잡이를 향해
뺨을 치던, 당신의 기개와 사랑을
최루탄에 쫓기면서 보았고
슬잔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독재와 파쇼에 짓눌린 이 땅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그날까지
부르고 또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이름을

당신의, 당신의, 그 뜨거운 붉은 피의 합성을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외쳐 부르렵니다.

조영래 (당시 43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47년 3월 26일 대구에서 출생
- 1965년 3월 서울대 법대 입학
- 1969년 3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
- 1971년 10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
- 1983년 변호사 개업, 전태일 평전 집필
-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 등 변론
- 1990년 9월 폐암 3기로 입원
- 1990년 12월 1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조영래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중 한일회담 반대, 삼성재벌 밀수 규탄, 6.7부정선거 규탄, 삼선개헌 반대, 교련 반대, 공명선거쟁취 등의 학생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후 6년 가까이 피신생활을 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주력하였고, 특히 3년여에 걸친 각고 끝에 전태일 평전(어는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집필하는가 하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망원동 수재사건, 대우어패럴사건, 이경숙 사건(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등을 변론하였고, 변호사협의회 인권보고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도지침사건, 박길재 사건(상봉동 진폐증 보상문제)을 담당하였으며, 기타 노동, 빈민, 공해, 학생운동 관련사건 등 인권변호에 전력하던 그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고나서 지병인 폐암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뒤로 한채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아름다운 변호사 조영래

65년 서울대 전체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하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6개월만에 끝내버린 '시험도사'로서의 지적인 재능, 경기고 시절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해 '공부선수'들로 이뤄진 경기고 학생들을 거리로 이끌어낸 탁월한 대중선동력, 78, 80년대 인권변호사로서 최고의 승소율을 가능케 한 논리정연한 변론, 판검사와 방

청객을 침묵케한 유려한 변론문 등, 한 인간이 가진 참으로 다양한 재주에 시기심까지 잠재우는 그의 놀라운 재능은 정작 따로있다. 다양한 세속적 재주를 넘어서는 실로 위대한 그의 재능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관철하기 위해 결연한 투혼을 불태울 수 있는 재능, 이것이야말로 실로 범인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위대한 재능이다.

조영래라는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영화가 개봉되면서부터. 1970년 스물둘의 젊음을 불길 속에 내던졌던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투쟁을 그린 '전태일 평전', 이 책은 이후 전태일 동지의 죽음을 노동운동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면서 한국노동운동사의 새 지평을 열게 했지만 정작 글쓴이가 알려진 것은 90년 말의 일이다.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로 나오던 이 책은 90년 개정판을 내면서 조씨의 지우 장기표씨에 의해 원저자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의 생전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끝내 거부라도 하듯 개정판 발간을 열흘 남짓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95년 전태일 평전이 영화화됐다. 조영래 변호사는 영화속에 나레이터인 70년대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그려지면서 평전의 저자로서 관심을 끌게 됐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73년에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하지만 다음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되면서 그 후 79년까지 6년 가까운 피신생활을

시작한다. 피신생활 중에도 조동지는 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의 불꽃을 식이지 않았고, 특히 3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다. 그는 암울하기만 한 수배의 시간조차도 자포와 체념이 아닌 투쟁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을 노동운동을 부활시키는 랫볼로 승화시킨 불후의 걸작 '전태일 평전'은 단순한 글재주의 산물이 아니다. 당시 젊은 그는 혈관을 관통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결연한 투혼,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은 물론 남들에게까지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타고난 낙천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영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다. 새날을 꿈꾸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개가 그렇듯이 그 역시 이상주의자다. 훨씬 낙관적인 이상주의자였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남들에게 빛을 던져 주

는 사람, 인간 조영래는 타고난 낙천적 기질에 바탕한 이상주의자다. 조변호사는 동시에 현실주의자다. 어떤 순간에도 현실에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인물, 그리고 그 대안을 목숨 걸고 이루려 하는 인물이 바로 조영래 변호사이다. 조영래 변호사는 이토록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다중적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나 그의 삶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는 일관된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조영래 변호사의 역할 '전태일 평전'에 그려진 동지 전태일을 두고 혹자는 예수의 순교자적 삶을 떠올린다. 그러나 인간 조영래 자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다. 한 인간이 평생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순수의 결정체로서 마흔넷 그의 삶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환하게 타오르는 빛이 사랑이다. (민주유공 96년 10월호 中)

황인철 (당시 53세)

墓 경기도 안성 천주교 공원묘지



- 1940년 1월 24일 충남 대덕 출생
- 1961년 10월 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2년 2월 서울대 법대 졸업
- 1981년 '전국자폐아부모회' 회장 역임
-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역임
- 1989년 경실련 공동대표 역임
- 1990년 민변 대표간사 역임
- 직장암 진단을 받음
- 1991년 윤석양 사건 변론 맡음
- 1992년 '계명복지회' 회장 역임
- 1993년 1월 20일 지병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황인철 동지는 유신 시대 이래 20년 가까이 권력의 폭압과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해 온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변호사'라는 개념조차 없던 불모의 시대인 박정희 유신정권 아래서 민청학련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건의 변호를 맡았는데 주로 70, 80년대 시국사건으로서 민청학련 사건, 지학순주교사건, 김지하반공법위반사건, 3.1 구국선언사건, 동아·조선투위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한승헌필화사건, 동일방직노조사건, 이영희·백낙청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YH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원풍모방사건, 강원대 성조기 방화사건, 오송회 간첩사건, 대우어패럴사건, 서울미문화원사건, 건국대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사건, 문익환 목사 및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윤석양사건 등 관계하지 않은 중요 시국 사건이 없을 정도였다. 또 자신을 포함한 제 1세대 인권 변호사들과 암울한 시대인 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보낸 젊고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함께 조직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결성과정에서도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산파역을 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인권변호에 앞장서왔던 황인철 동지는 언제나 넉넉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으며 그의 변론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당했지만 그의 태도는 언제나 온화하고 화해적이었고 남다른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황인철 동지의 생애는 변호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운동가로서의 사명을 다한 생애 그 자체였다.

◎ 추모글

【시】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정현종

차가운 하늘을 날아가는 겨울 오리들
틈에 끼여서 그대도 날아가고 있구나.
흠꺾다.

그대의 깃은 아직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격동이 그대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온몸으로 그대는 격동을 뚫고 지나왔다.
'無罪다'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모든 '有罪'를 감싸고.

양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어루만졌다.
정치는 바닥을 기고 무법이 서늘 퍼리며
그러나 대개 손을 놓고 있던 시절,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그리로 겨우 숨을 쉬었다.

그렇게 우리 숨길 터주던 그대,
옳은 자리, 착한 자리가 법,
아름다운 자리가 법이던 그대

차가운 하늘을 날아가는 겨울 오리들
틈에서 그대를 본다.
출겠다.

그대의 것은 아직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글
양심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고이 잠드소서

황선배님. 이미 각오는 했었지만 막상 선배님을 이
렇게 애통하게 떠나보내고 제가 추도의 말씀을 올린다는
일이 도저히 사실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던 홍성우선
배님의 독백은 황선배님처럼 착하고 넉넉한 영혼이 맞이하
야 하는 부당한 운명의 개입을 향의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지난 시절 독재 권력과의 숨막힐 듯한 싸움의 현장
인 법정에서도 절대로 흥분하는 일 없이 유유히 웃음마
져 떠나시고 독재의 하수인들을 설득하시며 민주 투사들을
위로하시던 선배님의 후덕한 모습을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변론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여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양심수들을 감옥 안의 접견실로 찾아오셔서, 나는
정역을 받게 만드는 못한 변호사라며 잡아주시던 따뜻한
그 손을 이제 어디서 다시 잡아본단 말입니까. 감옥에 간들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치욕의 시대인 유신과 5공·6공 처
하에서 모든 양심수들의 튼튼한 버팀목이셨던 황선배님은
이렇게 정녕 가십니까. 황선배님이 그렇게나 염원하시던 양
심수 없는 나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뒤에 남은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들어 있던 시청 앞 광학빌딩
시절, 정역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답답한 일
이 있으면 사무실 안에서 바쁜 업무에 파묻혀 있다가 제
가 찾아가면 언제나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위
로와 격려로 어려운 시절을 넘겼던 제가 이제 어디서 황선
배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남은 우리
들이 황선배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남기신 과제를 성취하
는 일이 황선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현수한 사모님, 그리고 눈에 밝히는 자녀들, 어찌
눈이 감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일을 남은 사
람들의 몫으로 여기시고, 양심수도 없고 고문도 없고 하늘
의 법이 지배하는 하늘나라에서 고이 잠드소서. 황선배님,
안녕히 가십시오.

황인철 동지를 생각하며 후배가

김 남 주 (당시 48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 1964년 광주일고 입학 후 자퇴
- 1969년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 문리대 영문과 입학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련반대운동에 주도적 참여
- 1973년 반유신투쟁을 전개하다 투옥, 제적
- 1978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가입
- 1979년 '남민전' 조직원으로 활동 중 체포, 구속
- 1984년 첫시집 "진혼곡" 출간
- 1988년 9년 3개월만에 석방
- 1994년 2월 13일 새벽 혜장암으로 투병중 운명
- 1994년 2월 16일 민족시인 고 김남주 선생 민주사회장으로 장례식 치름

◎ 동지의 삶과 죽음

김남주 동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임시위주 교
육에 반대하여 자퇴를 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3선개헌 반
대운동과 교련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학교에서 제적된 그는 고향 해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써 등단했다. 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
민전)사건으로 투옥돼 9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한
동지는 길지 않은 평생을 반외세·반독재 투쟁에 헌신하면
서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 80년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집을 남겼다.

88년 12월 석방된 뒤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및 한국민족 예술인 총연합 이사 등을 맡아 민족문화운동
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던 중 오랜 감옥생활과 석방뒤의 과로등이 겹쳐
어른 혜장암으로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김남주 동지는 우리에게 8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
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80년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하
지만 그가 감옥에서 우유갑이나 밀싹개용 등에 쓴 시들을
 묶은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
나다」 등은 그 누구의 시보다도 80년대 폭압적 현실의 한
복판을 날카롭게 꿰뚫는 절창으로 애송되었다.

남민전 사건 이전에도 독재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
또한 치열했다.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투쟁속에 동지 모
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떨어져 가지 말자" 그의
시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외에도 여러 시들이 노래로 만
들어져 투쟁의 현장에서 즐겨 불렀거니와 시인은 병석에
누워서도 민족민중운동의 대동단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
진다.

◎ 추모글

【시】

黃土碑

朝鮮 황토의 아들 金南柱

김준태

아들아, 1백년전
우리에게는 金南柱라는
혁명전사-온몸이 사랑과 불꽃으로 뭉쳐진
그런 시인이 있었단다
저녁연기도 향기로운 남녘땅
쑥쑤리 황토를 박차고 일어나
反外勢 輔國安民을 외치며
망월동 넘어 白山竹山을 넘어
오오, 우금치 피바다 산마루를 넘어
끝끝내 끝끝내는 「조국은 하나다!」

金南柱라는 가슴벅찬 시인이
아들아, 우리에게 있었다
편의 우리에게匕首를 들이밀고
善한 사람에겐 들꽃이라도 안겨주던

은몸이 사랑과 혁명, 불꽃으로
뭉쳐진 金南柱라는 시인이
아들아, 1백년전
우리 고려반도에 있었더니라.



문영수 (당시 29세)

墓



1953년 11월 10일 서울 출생

청량리 초등학교 졸업

진아교통 버스기사로 일함

1982년 8월 19일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을 당함

1982년 8월 22일 광주 적십자 병원에서 운명. 행려병환자로 위장된 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됨.

◎ 사건경위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김광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문영수를 검거하여 역전파출소로 연행했다. 김광호는 피를 흘리며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연행될 당시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다음날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증인 환자를 발견하여 광주시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시킨 후 광주 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시켰으나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인 행려병 환자로 취급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로 넘겨지고 몇개월간 보관되다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고소장】

고소인: 춘천시 죽림동 11의 56호 7통 2반 문덕수
피해자: 문영수(1982. 8.22. 광주적십자 병원에서 사망)

피고소인:

1) 최관석(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2) 임용남(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월산동 파출소 근무)

3) 최병용(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미국이민중이나 현 국내 거주)

4) 문규조(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5) 나택근(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조사계 근무)

6) 김성열(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장)

7) 양종호(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원)

8) 윤재룡(전남의대 해부학교실 해부학교수)

9) 사체해부당시 전남의대학장

상기 피고소인들의 피해자 문영수에 대한 사체유기, 사체부검방해, 사체실습사용, 공문서위조, 지휘감독소홀, 은폐조작행위 등 위법행위혐의에 대하여 관계 경찰관 등을 고소하오니 이를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사실】

1.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가 피해자인 김광호와 술을 함께 마시다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사건현장에서 검거되어 역전파출소로 연행되어 피해자 김광호는 피를 흘려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고 함. 가해자 문영수는 사건현장에서 연행당시와 역전과 출소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 김광호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아무런 부상도 없었다고 하며 건강상태는 매우 좋았다고 증언함.

2. 가해자 문영수는 연행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전남밤(82. 8. 19.) 사건담당형사 최병용의 경찰관 1명에 의해 순찰중 광주시 소재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되었다고 거짓 증언하여 광주시 유동소재 조세현의과에서 응급조치 후 광주직접자 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입원시켜 치료하던중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하였다고 함.

3.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으로 경찰관에 의해 허위조작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사체를 인계하고 사체를 인계하고 사체를 인계받은 전남의대 해부학교실은 그후 몇개월간 보관하다가 학생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함은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러한 피고소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별 혐의내용】

가. 피고인 최판석, 임용남은 역전과출소에 근무하던중 익명의 전화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 문영수와 피해자 김광호를 체포하여 과출소로 연행하여 조사하였음에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가해자인 문영수는 사건현장에 도착하니 도주하여 문영수를 체포치 못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사건현장인 덕천여인숙에서 체포하였다고 거짓증언함은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행위.

나. 피고소인 최병용, 문규조는 서부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던중 1982년 8월 19일 밤 문영수를 역전과출소로부터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문영수를 광주직접자병원에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된 행려환자라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입원 시켰음.

다. 사건책임자 나택근은 광주서부경찰서에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된 문영수가 조서를 받았던 담당형사들에 의해 광주직접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되어 사망하였음에도 사체부검실시도 하지 않고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보내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상급책임자로서 상피고인들에 대한 자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함.

라. 김성렬, 양종호는 문영수의 사체를 복구청장 등으로부터 가매장 사체처리 지시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사체가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임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음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함.

마. 전남의대 해부학 교수 윤재룡(담당교수), 사건 당시 전남의대학장은 문영수 사체해부신습 전에 관계기관에 사체해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및 유가족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사체를 정당하게 관계기관에 인도 교부받아 학생실습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이행치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체를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함은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는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함.

*참고:문영수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을 못취했다 하면서 사망자 문영수의 전과기록부에는 1982년 8월 19일 폭행사건의 죄인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았고 직접자 병원 입원 기록카드에도 본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피해자도 김광수도 '연행당시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문영수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치료비도 받게 해달라는 부탁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증언함.

1987년 9월 12일
고소인 문 덕 수
광주지방 검찰청장님 귀중

박 상 구 (당시 20세)



1967년 7월 6일 경남 울산 출생
1986년 대구 공고 졸업
하사관 입대
1987년 5월 11일 운명

◎ 사건경위 및 의문점

① 1987년 5월 11일 사망 전보를 받고 도착 즉시 아이를 보고자 하니 이리 저리한 핑계를 대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빨리 아이를 보자"고 독촉하니,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부부를 마치 자기의 부하처럼 호령을 하며 "농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길래, "왜 농약을 먹었느냐"고 하니, 병원에 있는 다른 군인이 '집이 가난하여 공부할 돈이 없었다'며 비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가서 내 아들인지 확인하자고 했지만, 차가 없어서 못 간다며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가 몇대씩이나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것들은 차가 아니고 무엇이야?"고 따졌지만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아주 천천히 달리길래 "빨리 가자"고 독촉을 해도 중대장이 박하사 청찬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 고등학교도 군대 생활하면서 통신으로 졸업을 했으며, 지금 군생활이 17년째이고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② 병원에 도착하여 영안실에 갔더니 영안실 열쇠가 없다는 말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영안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보니, 오른쪽 귀부분과 얼굴, 몸은 깨끗한데 왼쪽 귀부분과 목, 어깨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가 어찌 몸이 이렇게 깨끗하

며,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느냐" 하니, 약물이 목에 흘려서 그렇다고 하기에 "농약을 먹으면 몸 전체에 푸른 반점이 있는데, 목 부분만 변색이 되는가"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③ 또, 귀와 코구멍에서 피가 나와 있기에 "피가 왜 나왔나" 하니 호스를 넣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와 귀에 왜 호스를 넣어 피가 나오도록 무엇을 하였나" 하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깨에 7-8센티미터의 칼자국이 있어서 나의 엄지 손가락을 넣었더니, 손목 가까이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팔에도 같은 칼자국이 있어서 "웬 칼자국이야"고 물으니, "혈관이 잘 안 나와서 주사를 놓으려고 그랬다"고 과견대장인 엄홍만(제37사단 헌병대 군사법원 헌병)이 답변하였습니다.

④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데, 식도 부위에 엄지 손가락이 마구 찍힌 자욱이 세척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은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 "약을 먹고 답답하니 쥐어 뜯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손으로 쥐어 뜯으면 밑으로 굶어 놓지, 이것은 목을 졸리면서 찍은 엄지 손톱자국이다" 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환과 항문쪽으로도 피멍이 들어 있고, 귀에도 두 줄기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과견대장이 하는 말이, "고환에도 이상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조사했다" 고도 했습

니다. 왜 약먹은 사람이 고환이 이상하며, 왜 고환을 조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발로 찾지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⑤ 시체 부검을 하자고 하니,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파견대장이 말하기에, 이 병원에서 음독 자살이라고 사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부검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탄 곳으로는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빨리 화장을 해야 한다고 부대장이 주장하기에 우리는 군법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이 죽고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화장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먹었으면 온 몸에 푸른 반점이 생긴다는데 몸과 얼굴은 깨끗하였고 목과 어깨만 진한 잉크색으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입힐때에도 부모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⑥ 꾸준한 선임하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없다고 하기에 계속 만나기를 요구하였고 나중에 선임하사가 왔습니다. "얼마나 꾸준을 했기에, 농약을 마시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가" 했더니 선임하사는 "심하게 꾸준도 하지 않았고, 늦게 왔기에 왜 늦었냐, 가서 자라고 한 것 밖에 없다. 그런 일로 자살한다면 이 부대에 군인이 남아 있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임하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니, 부대장이 뒤에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된다"며 소리를 지르니 선임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선임하사의 다음 말을 막으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중대장과 탄약 검사원이 "병원비도 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금을 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탄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10시간도 안 되어서 60만원이 넘는다면, 또 하루를 더 있으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⑧ 파견대장이 보호자 도장을 달라기에 상구의 형에게 주었더니, 형을 데리고 가서 화장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황중에 있는 부모에게서 도장을 받아서 자기네 일만 처리해서 자신들만의 안전만 도모한 처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나라에 바치

려고 하던 아이였으니,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⑨ 파견대장이 거절하고 탄 곳에 못 가지고 간다고, 군인이니까 그런 줄만 알고 하자는 대로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⑩ 우리들 마음에 의문이 가지지 않아 음성 순천향 병원 담당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로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한참만에 "먹었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약을 먹었으면 냄새가 날텐데, 냄새가 나더냐"고 물으니, 먼 산만 바라보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 하기에 "농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니 무슨 말이나, 나면 나고 안나면 안나온 것이지, 나는 것 같다니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칼자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 "칼자국은 무슨 칼자국이냐"고 화를 내면서,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를 끌어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주사를 놓으려고 끊었다고 파견대장이 말하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야 "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어디를 끊었느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팔꿈치를 가리키면서 거기를 2-3센치 끊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인한 상처는 팔꿈치가 아닌 오른쪽 어깨의 앞쪽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다"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사실 다리에도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사는 시체를 보지도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가 사실로 시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였다면 상처난 부위가 어디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대장은 손목을 끊었다고 하고, 파견대장은 여기 어딘가 끊은 것 같으며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들은 개처럼 끌려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을 불러서 결국엔 경찰서에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여자 둘이서 조곤조곤 묻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때문에 담당의사가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약을 먹고 치료하다가 죽었다면,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이지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⑪ 또, 중대장이 죽은 아이와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사를 놓기 위해 끊었는데 끊은 부위가 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한 의사도 어디를 끊었는지도 모

르고, 같이 있었다는 중대장도 상처 부위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⑫ 약을 먹었다는 창고에 가 보니,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파견대장이 하는 말이, 진열대 상단에 있는 약을 마시고 세제 칸에 뚜껑과 병을 다시 나란히 넣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격한 중에 약을 먹을 정도에서, 어떻게 약을 먹고 약병과 뚜껑을 세제 칸에 다시 가지런히 놓아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미치겠습니다.

재차 가서 파견대장에게 물어보니, 파견대장이 저만 쳐다보며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⑬ 파견대장이, 유서가 있다가에 보자고 하니, 유서를 보기 전에 박하사가 교회에 다녔다면서요, 주님께로 먼저 간다고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유서는 조그만 군인수첩에 쓰고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글씨가 같다"고 혼자말을 하면서 "이 유서가 어머니는 필요 없지"하면서 자기가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부대장님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선임하사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서의 내용에 대해 의심이 갑니다. 기독교인은, 자살을 하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결코 자살을 할 리가 없고 설사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유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엄마더러 기도해 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기에 자살을 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⑭ 그 후, 재차 부대에 가서 중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 파견대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파견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 서랍을 뒤적이다가 사병들에게 박하사 유서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병들이 찾다가 없다고 하니, 버렸는가 보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보관한다고 하고는 버렸냐"고 따지니까 버려도 좋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기장도 달라고 하니, 일기장은 그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서를 볼 때 당신이 일기장하고 대조를 하면서 글씨체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래서야 "유서는 상부

에 보고할 때 서류에 첨부해서 보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조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에서 이래도 되느냐"고 하니, "어머니, 무엇을 원합니까?"라고 묻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고 왔다, 이제 보니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이 간다"고 하니, 자신도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⑮ 중대장은 병원비가 60여만원이라고 하고, 부대장은 100여만원을 병원비로 주었는데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부하들의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이고,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부대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많은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돈 몇푼을 병원비로 지불한 것은 중요하고, 남의 귀한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와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대장의 책임입니까? 그 자신도 자식이 있겠거늘 어찌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지 군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부대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또 큰 불상사가 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⑯ 또, 약 먹은 시간이 그들 말로는 20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사가 15분 늦게 귀대하여 꾸준을 했다고 했는데, 30분에 약을 먹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21시 30분이라는 기록이 병원 임상기록에 있었습니다. 몇일 후에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해 달래려고, 이름을 '박상구'라고 하니, 업무를 보던 아가씨가 "잠시 영안실에 두었다가 나간 군인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인 신명채 하사에게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니 아무말도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 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⑰ 약을 먹은 사람이 목에 목을 졸린 흔적이 있고, 어깨와 팔에 칼자국이 있으며, 귀와 코에서 왜 피가 흘러나왔으며, 고환은 왜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였는지 저희들

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 아들이 죽은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기에 경황이 없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들을 화장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이 어찌 몸바쳐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맺힌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 기록에서 보는 위증자료】

①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박상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고 부대 병원에 이송한 사람이 있고 순천향 병원에서 아들의 사체를 보았는데 현장약도와 현장사진, 검안 사진이 모두가 부대 내의 건물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부대 내에 두고 사진 찍고 검안하고 부모가 부대에 도착 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병원에 입원 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치료하였다면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음 하는 것을 업고 갔다는 진술서 또한 거짓이다.

② 그때 순천향 간호사의 말이(잠시 영안실에 두었다 나간 군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무슨 조치를 했다는 말은 모두 허위인 것이다.

③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처음 어머니가 보신 내용과 헌병대에서 첨부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인은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느냐 하는 항의를 했는데 5공특위 때 나온 사건 기록에는 천국에 먼저 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서라고 하는 것 또한 조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④ 사체검안 시 조작된 부분이다. 몸의 여러 곳에 칼자국이 있었는데 오른쪽 목부분의 상처가 가장 컸었는데 사체 검안 하는 자들이 흰천으로 가려 놓고 사진을 찍었다면 삼척동자에게 물어 보아도 용납할수 있는 사항이겠는가? 하는 점이고, 다리와 허벅지에 칼자국이 모두 반창고로 봉해져 있었다면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⑤ 모든 사건이 증거품이 보관되며 소지품 또한 보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의 보관된 피복을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사건은 명명백백해 질것로 믿습니다. 꼭 죽음 당시 피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 바랍니다.

⑥ 죽기 전에 부대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사진은 병원이 아닌 부대내의 시설물이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태 춘 (당시 27세)

墓 양산 가톨릭 공원묘지



| | |
|-----------------|---|
| 1960년 2월 7일 | 부산에서 출생 |
| 1986년 2월 | 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 1986년 3월-87년 3월 | 주식회사 화승 자재과 근무 |
| 1987년 3월 2일 | 태광고무(주) 무역부 입사 |
| 1987년 6월 18일 | 6월 민중항쟁의 시위 도중 부산시 좌천동 오버브릿지 밑에서 쓰러진 채 발견 |
| 1987년 6월 24일 | 부산시 봉생병원에서 뇌수술하였으나 운명 |

◎ 사건경위

이태춘 동지는 1987년 6월 18일 부산 좌천동 오버브릿지 시위에서 전경들이 다연발탄과 직격탄을 쏜 후 오버브릿지 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날 저녁 좌천동 시위는 6월 항쟁 중 부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고, 발견 당시 상황은 행진 중 전면에서 있던 경찰이 갑자기 다연발 탄과 총류탄을 난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밀집하여 있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뒷쪽으로 피하면서 흩어졌고, 사람들이 떠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런 상태였다.

시위대가 지나간 뒤, 오선숙씨 등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4명(남2, 여2)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태워서 대연동 재회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때 후송했던 시민 오선숙씨의 말에 의하면, 이태춘동지는 눈을 가늘뜨게 움직였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옷에 하얀 최루가루가 뿌옇게 묻어 있었다고 한다.

후송했던 오선숙씨는 병원에서 왜 쓰러져 있었는지 이유를 묻기에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데모 중에 다쳤다고 하면 혹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아마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그 이후 계속 추락이란 말이 나옴)"

그뒤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병원으로 도착, 이태춘 동지를 만나니, 이태춘 동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는 듯 하면서 어머니 손을 꼭잡고서는 "최 최..."라는 말을 안간힘을 다하여 하려고 애를 썼으며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이태춘 동지가 들어오면서 최루탄 가스냄새

가 병원에 평장했다고 한다.

재회병원의 시설미비로 밤 12시경 다시 봉생병원으로 옮겨 신경외과 김호경과장의 집도하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1987년 6월 24일 20:40분경 운명하였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태춘 동지의 증세는 최루탄을 맞고 운명한 연세대 이한열 군과 같다고 수술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병원 원장은 "태춘이는 최루탄을 맞았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화를 발칵내면서 "이 아주머니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빨갱이가 쳐내려 올러는 이때 그런 유언비어를 하고 다니면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하며,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 친구들이 재회병원으로 가 처음 후송한 사람을 찾아 만나 보기 위해 수납일지를 찾아보니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작성해 놓았으며 후송자들 주소 성명도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뒤에 나타난 후송자는 분명히 수납일지에 적었다고 함.)

87년 6월 25일 부산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부검결과 직접적 사인은 뇌좌상이었고 오른쪽 이마 윗부분에서 정수리를 거쳐 후두부까지 20.5cm에 이르는 종방향 두개골 골절이었다. 그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일체의 외상이 없었다.

부검후 22:00경 시신을 연산동 시립 부산의료원 영안실로 안치하였다가 1987년 6월 27일 10:00 범일성당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다.

◎ 의문점

이태춘 동지 사망 후 각 언론에서는 최루탄 파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수에 의한 단순 추락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첫째,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최... 최...”라는 말을 하려고 간절하게 애를 썼으며 둘째, 후송 당시 옷에 최루탄 가스가 밀가루처럼 뿌옇게 묻어 있었으며 셋째, 추락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에 일체의 의상이나 풀질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 추락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태춘 동지는 사고 당시 시위대 열 앞 부분에 있다가 쏟아지는 최루탄에 맞았거나, 최루가스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다가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

이태춘 동지는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5만원짜리 방에서 월 33만원으로 다섯 식구의 생계를 꾸려왔다. 아버지는 일용노동을 하다가 천공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요양중이었으며, 누나는 망인의 학비 보조를 위하여 결혼을 늦추고 공장에 다니다가 동지의 대학 졸업 후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있던 중이었다. 동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감은 물론 6월 민주화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넋을 울바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사인은 다시 규명되어야 하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인 최루탄은 추방되어야 한다.

정연관 (당시 21세)

墓 대전 국립묘지



- 1966년 12월 강원도 삼척군 출생
- 1973년 3월 철암국민학교 입학
- 1978년 2월 대구 남산국민학교 졸업
- 1981년 2월 대구 경구중학교 졸업
- 1984년 2월 포항 대동고 졸업
- 1986년 5월 군입대
- 1987년 12월 4일 운명

◎ 사건경위 및 의문점

【군부재자 투표후 사망】

지난 87년 12월4일 고참에게 기합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발표된 육군 8350부대 군수지원단(경기 벽제읍 소재) 정연관 상병(당시 22세)의 시신은 벽제화장터 11번 코너에서 화장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당시 부재자 투표 관련설로 정치사건으로까지 비화됐던 정연관 동지 사망 사건은 동지를 구타, 사망케한 백재운 병장(22)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정연관 동지의 어머니 임분이씨(54)는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고 끈기있게 “정연관 동지가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어 맞아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관 동지의 장례식 때도 임씨는 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생매장하라고 부르짖었다. 임씨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연관을 묻는 행위는 생매장과 마찬가지로”라면서 “현정권의 탄생과 관련되어 죽은 연관은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눈감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정연관 동지가 사망한 87년 12월4일은 부재자 투표일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원은 씨리작업을 마치고 6시 반경 부대로 복귀, 부재자 투표를 마쳤다. 취침 점호 후 백병장은 금속수리반 9명을 기상시켜 침상에 일렬로 세워 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차례로 가슴을 쳤다. 각각 2대씩이었다. 정연관 동지는 왼쪽에서 6번째 위치해 있었다. 백병장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칠 때쯤 정연관 동지를

여러 명이 일으켜 세웠다(백병장의 진술). 5일 새벽 5시 경북 대구에 있는 집으로 사망통고가 전화로 왔다. 통고를 받고 깜짝 놀란 가족들은 “사망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부대 관계자는 “와 보면 안다”라고 답할 뿐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당일 급히 부대에 찾아가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군관계자는 “사흘 후에 훈련이 있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장 백재운이 내무반에서 사병들을 9명 침상끝에 세우고 두 차례나 돌아가며 주먹으로 구타하여 정상병이 관물대에 머리를 받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6일날 아침 일찍 부대에서 부검하자고 제의했으나 가족들은 거부하고 정연관 동지와 함께 구타를 당한 동료들과 면담하기를 희망하여 상병 이호택의 동료 1명과 면담했다. 가족들은 “정상병이 사망할 때 직접 목격했느냐?”라고 묻자 흥분한 상태에서 “당시 보초서기 위해 나가려고 했는데 총에 실탄만 있었으면 모조리 갈겨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대답을 듣자 “연관이가 매를 많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 때 “정상병은 태권도가 3단이고 유도를 할 줄 알아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구타로 죽지는 않았는데 연관을 왜 죽였느냐?”고 항의 했다. 그러자 군의관이 “정상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잘못 없는 연관을 왜 죽였느냐. 연관을 죽인 사람을 데려와 사과시키라.”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병장 백재운, 병장 김용웅, 병장 홍익표, 하사 김택기, 중사 배재천, 대위 김판식

등 피의자 6명 중 하사 김택기만 불구속되고 나머지 5명은 구속되어 수감돼 만나볼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으니 그냥 화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후 병장 백재운은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으나 나중에 감형되어 18개월 징역을 살고 출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한달 살고 모두 나왔다.

백병장은 심문에서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연관 동지를 폭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 개요 설명에서는 백병장이 정연관 동지를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외력에 의한 원발성 쇼크사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부검결과를 추후 통보한다”고 나왔다. 그러나 시신의 정황으로 보아 전혀 그렇지 못했다. 목뒤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또한 양 엉덩이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등뒤에도 청자색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 두 차례에 의한 주먹질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씨는 “제대한 사람으로부터 정연관 동지가 야당을 찍어 기합받다 사망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재운이 시신 앞에 서서 절을 하자 “연관이를 왜 죽였느냐. 개인 감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아니오” 소리만 3번 반복해서 대답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이후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시키기 위해 들어갈 때 어느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정상병 죽음은 세계 만방에 알려도 영광된 죽음이다. 정상병은 하늘 나라에 갔을 것이다.”라는 말과 “영결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줄 것이다.”라는 말을 어느 장교가 했다. 화장을 하고 뼈를 가지고 정상병이 근무하던 부대로 이동하는데 수십명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 있으면서 격렬하게 오열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에서 마련해 준다는 차를 거부하며 봉고 승합차에 유족이 있는데 동료들이 “제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오열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단순히 기합을 받다 한 두차례로 얻어 맞은 구타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는 군대에 가기 전 대구 제영대 앞에서 선물의 집을 운영하며 변혁운동도 하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비록 군대이지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후보에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한 댓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는 반드시 선거와 관련되어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평소에 썼던 일기장에 틈틈이 부대에서 느낀 점을 기록해 둔 것을 동료인 병장 홍의표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정상병이 각오를 단단히 했다”고 증언하며, 제대 후 병장 백재운과 병장 홍의표의 동료 1명이 사회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가족이 제대한 당사자들을 만나 보았으나 저마다 말이 틀렸다. 유족이 백병장을 상대로 녹음을 해 둔 정확한 근거로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부터 방위병까지 전부 불러 기호 1번 노태우 후보를 찍으라. 몇 %까지 나오지 않으면 지휘관들이 옷을 벗는다.”는 교육을 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은 임씨는 정연관 동지가 죽은 후부터 하루도 집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현정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연관이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면 이땅이 민주화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 임분이 어머니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추모글

【호소문】

국회의원 여러분!

자식은 죽어 부모 가슴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굵디굵게 키워온 내 아들 조국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자랑스러워 하더니,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마음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아들의 죽음이 골수에 사무치는 저의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할지 몰라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해 박종철군과 이한열군의 희생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던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찾았는가 했더니, 또다시 12월4일 부재자 투표 후 내 자식마저 죽여버린 살인극을 연출한 피도 눈물도 없는 군부 만행과 조작을 밥먹듯이 해대고 있는 독재에 대해서 민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려 하니, 악명높은 살인마 백골단과전경을 앞세워 부정부패, 은폐조작을 하고 있는 높고 두터운 독재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저 앉아야만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 국방부장관 정호용이가 내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왜곡 보도하였음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 과연 A.T.T혼련을 앞두고 기합을 주던 중 가슴 두대 맞아 죽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내 아들의 시신 등쪽 전부가 청자색으로 멍들어 있었고, 다른 몇 군데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간의사가 와서 부검을 한다고 해놓고 사복한 군의관 양두익이가 부검한 것은 우리 유족의 눈가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의관의 부검서가 원발성 쇼크사라고 허위조작하였으나 부검서의 내용만 보아도 가슴 두대 맞아 죽은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의사가 부검한다고 속이고, 쇼크사 또는 심장마비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위해 지난 12월4일 군부재자 투표를 한후에 죽었다는 사실과 여러명의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구가 고향인 놈이 왜 1번을 찍지 않았느냐, 빨갱이나, 간첩이나 하면서 마구 때렸다는 말과 그 이후 지금까지 5개월동안 수 차례 내 아들 부대에 찾아가서 대대장과 중대장 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도 않는 말들을 해대며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을 찍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야당을 찍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아들의 죽음이 현정체에 어두웠던 엄마의 눈을 새로 뜨게 하였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죽음 그 진상을 밝혀서 생의 가장 왕성한 나이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한때를 보내는 군인들이 군부독재정치의 제물이 되고, 그 죽음이 억울하게도 조작되는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설움과

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부모가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군복무 중에는 강제로 집권여당을 찍어야 하는 억울함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기위해, 이 죽음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심판하여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가 의례히 집권여당의 고정표로 생각해 왔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고 더이상 권력에 억압되어 자신들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투표하는 일이 없게 하기위해 대한의 젊은이들이 상관들만이 아닌 야당측 참관인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져서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여, 보다 완전한 민주국가를 이룩해가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이 몇명인데 그 수많은 표를 방치해야 합니까. 새로이 당선되신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의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되고, 입이 되고, 소리가 되어 거들거들 이 일을 국회에서 거론하여 올바른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군에서의 죽음은 개죽음이라하여 자식을 군에 보내며 그 아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는 세상을 바로잡아 나라를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도 늘상 유난히도 환하게 웃던 제 아들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진정 조국을 위해 죽었노라고 이 어미 조국 대한민국에 아들을 바쳤노라고 그 영광된 이름으로 이 한울 조금이라도 셋어 내릴 수 있도록 이 어미의 피맺힌 호소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故 정연관 상병의 어머니 임분이